



문화시설별 접근성  
공연 시설 가이드

## 목차

1. 공연시설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안내 7
  - 가. 목적과 방향 9
  - 나. 특징과 주의 사항 9
  - 다. 가이드 활용 방법 및 구성 10
2. 공연시설을 위한 접근성 13
  - 가. 공연예술과 접근성 15
  - 나. 공연에서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16
  - 다. 접근성 관련 업무의 수행 21
3. 기획과 제작 :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한 준비 23
  - 가. 모든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가능할까? 25
  - 나. 공연의 제작 및 기획 단계에서 고려하면 좋은 요소들 28
  - 다. 제작 및 기획 단계에 주요하게 참여해야 할 인력 41
4. 홍보와 마케팅 : 어떻게 알리고 전달해야 할까? 43
  - 가. 홍보와 마케팅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45
  - 나. 아직 만나지 못한 관객을 위한 마케팅 53
  - 다. 홍보와 마케팅 단계의 주요한 인력 55
5. 방문과 관람 57
  - 가. 사전단계 : 방문 결정부터 도착까지 60
  - 나. 관람단계 : 공연 관람부터 건물을 나서기까지 62
  - 다. 사후단계 : 공연에 대한 경험 나누기와 재방문 71
  - 라. 방문과 관람 단계 주요 인력 73
6. 공연장에서의 접근성과 안전 75
  - 가. 안전을 위한 고민과 실천 77
  - 나. 안전을 위한 담당 인력과 접근성 81
7. 접근성 공연의 사례들 83
  - 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 사례 85
  - 나. 창작의 일부로서의 접근성 94

- 8. 피드백 101
  - 가. 왜 피드백을 받아야 하나요? 103
  - 나.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할까요? 105
  
- 9. 참고 자료 111
  - 공연시설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113
  - 장애인 관객과의 대화 가이드 118
  - 법적 기준과 높은 접근성의 확보 121









# 1. 공연시설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안내

## 가. 목적과 방향

###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증진

공연시설의 접근성 가이드는 공연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가 접근성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부터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연문화를 만들어가고 향유하는 모두가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접근성 논의의 공유와 확산

이 한 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공연예술계 전반에서 관련한 논의가 지속 및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연시설

## 나. 특징과 주의 사항

### 체크리스트로서의 가이드

본 가이드는 지침이나 규정이라기보다는 생각해야 할 것, 고려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가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고려하고 더욱 신경써야 하는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연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수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로 기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연의

제작·준비·상연 등 주요 단계에서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이슈들은 무엇인지, 각 이슈에 어떤 대안과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공유합니다.

## 다. 가이드 활용 방법 및 구성

### 다양한 업무 영역에 적용

본 가이드는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접근성 매니저나 음성해설 작가, 자막해설 제작자와 같은 접근성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위한 것이 아닌 공연장 종사자, 기획자, 연출자, 출연자, 무대 스태프, 하우스 스태프, 분야별 디자이너 등 공연에 참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현재 하는 일에 접근성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프로젝트별 개별적인 체크리스트 작성에 참고

접근성 영역에서는 법적 기준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 작품의 제작 환경, 개별 공연시설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공연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대입하여 각 프로젝트의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본 가이드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피드백의 공유

가이드를 활용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듣고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접근성에 대한 모두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확산을 고려한다면, 축적되는 사례와 노하우를 공연예술 관계자 사이에 공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드백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다면 접근성 논의와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발전·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이드의 구성

이 가이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연시설과 공연예술에 있어서 접근성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는 무엇일지 등을 먼저 살펴보고 공연 기획의 큰 흐름에 따라 ‘기획과 제작’, ‘홍보와 마케팅’, ‘방문과 관람’ 순으로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과 제작’ 부분은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한 준비 단계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주요하게 참여하는 인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부분은 접근성 공연을 어떻게 알리고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문과 관람’은 관객들이 공연시설을 찾기 이전 단계부터 관람 및 이후 단계를 구분하여 공연시설 경험의 여정에 따른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접근성과 안전’에 관한 고려사항과 실천방안, 담당 인력에 대한 내용들 접근성 공연의 사례와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공연시설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장애인 관객과의 대화 가이드, 공연시설 접근성 관련 법적 기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 공연시설을 위한 접근성

### 가. 공연예술과 접근성

#### 찾아가는 공연과 접근성 높은 공연

2000년대 초반까지 장애인을 고려한 공연예술은 주로 장애인 관련 시설로 ‘찾아가는 공연’의 형식, 또는 특별한 날을 정해 장애인 관객을 단체로 초대하는 특별 공연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공연을 관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는 장애인들에게 공연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공연예술계에서 논의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은 이 같은 방향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관점이며, 실제 공연에서도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형태’가 공연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식이라면, 2020년대 논의되고 있는 공연예술에서의 접근성은 모두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연을 보며 ‘모두 같이 다가가는 형태’를 지향합니다.

‘찾아가는 형태’는 공연을 볼 기회가 없는 다양한 사회계층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는 차원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공연의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주는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공연장에서 같은 작품을 누구나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두 같이 다가가는 형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예술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차원에서 실현 시켜주는 ‘접근성 높은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성 높은 공연’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다각적인 노력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공연계 현장에서 보이는 많은 ‘접근성 높은’ 시도들은 많은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공연예술의 접근성에 대한 노력

공연예술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노력이 선도적이라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시도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접근성 매니저’의 활동만 보더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공연예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접근성 공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통해 좋은 대안이 만들어졌으며 참고 자료와 사례들이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례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연 분야에서는 많은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공연을 만드는 관점에서의 접근성**

공연예술 분야가 다른 장르에 비해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점을 바꾸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객의 관점이 아닌 공연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성을 바라보면 또 다른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 관객을 위해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없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법령도 1998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공연시설에 장애인 관객들이 좀 더 접근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직접 공연을 만들고, 출연하고, 스태프로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높은 접근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공연계에는 다수의 장애인 배우들, 무용수들, 연주자들, 장애인 연출가와 안무가, 기획자, 조명디자이너, 평론가 등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현실에서 이미 문화예술의 창작 주체로 활동하고 있기에 장애예술지원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그 수가 더욱 더 늘어나야 하며, 활동 역시 활발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공연시설 접근성에 대해 논의한다면, 공연창작 과정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전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합니다.

## **나. 공연에서의 접근성 체크리스트**

### **접근성 체크리스트의 중요성**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한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와 대상, 이슈들이 복잡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의 개념부터 실제 공연에 적용까지의 과정은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성을 조금이라도 체계화하고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체크리스트입니다. 복잡하고 얽혀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해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우리 공연시설이, 우리 공연 작품이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보일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체크리스트의 범위와 대상**

접근성과 관련한 이슈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체크리스트 역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해 본다면 ‘공간과 설비’, ‘기획과 운영’, ‘인력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과 설비’는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된 기준으로 공연시설의 건축 단계부터 공연을 위한 무대의 구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과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기획과 운영’은 공연시설의 운영정책부터 작품의 구성(대본), 홍보와 마케팅의 수단, 각종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과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정부와 공공의 접근성 관련 지원 정책까지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공간과 설비’와 ‘기획과 운영’에 실제로 참여할 사람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의 유무, 인력이 가진 접근성 관련 역량의 수준, ‘공간과 설비’와 ‘기획과 운영’의 효과적인 결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인력구성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표 1] 공연시설과 공연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

구분	세부 구분	내용
공간과 설비 (Hardware)	기본 요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한 관련 법률에 따른 통행로, 경사, 주차구역, 내외부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성 관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인테리어가 반영되어 있는가? (단차가 없는 공간, 유선형의 인테리어)
	채광성	자연광 확보, 장애인의 시각, 청각에 보완될 수 있는 환경인가?
	면적 적정성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보행 약자를 고려한 각 실별 면적 규모는 적절한가?
	건축음향	청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 사용시 적절한 건축음향적 환경인가?
	동선	가급적 수평 이동 중심으로 계획되었는가? 비상대피시 적절한 대피가 가능한 동선 구조인가? 주차장, 대중교통등의 연결시 동선상의 문제가 없는가? 눈, 비등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동선 환경인가? 안내견, 보행보조장치 등의 활용에 적절한 동선인가? 무대로의 진입, 백스테이지, 반입 동선상에 접근성은 적절한가?
	가시선	휠체어 사용자의 가시선, 휠체어 좌석 위치로 인한 가시선의 방해 등이 없는 구조인가?
	사인물	접근성을 고려한 사인물이 있으며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보강설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각종 보조 및 보강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성을 고려한 위치에 구성되어 있는가?
	사무공간	접근성을 고려한 사무공간의 구조와 환경인가?

구분	세부 구분	내용
기획과 운영 (Software)	정책/전략	해당 시설 또는 작품에 접근성 관련 정책과 전략이 있으며 적절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기획과 구성	공연 기획의 단계에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작품의 컨셉, 기획, 대본의 구성, 제작진 및 출연자 구성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전략상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 전략이며 내용상 관련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표현을 반영하고 있는가?
	매뉴얼	공연 작품 제작과 공연시설의 운영의 상황별 접근성 관련 이슈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설비 운영	각종 지원 설비의 운영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설비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이 최신 상태인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용의 편의(예약/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피드백	접근성과 관련한 적절한 피드백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영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
인력구성 (Human-wear)	인력의 배치	접근성과 관련한 총괄적인 책임과 운영이 적절히 배정되어 있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있는가? 해당 인력을 통해 접근성과 관련한 정책과 운영이 적절히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직무와 역량	시설의 구성원, 작품 참여자들에게 접근성과 관련한 이해와 실천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가? 각 직무별 접근성과 관련한 직무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효과성	각 접근성 관련 직무와 인력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가?

## 접근성 체크리스트의 적용과 활용

복잡성이 높은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편의상 가장 기본적인 구분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으나, 세 분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내용적으로는 상호 연계하여 판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획 및 운영되고, 계획과 운영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역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시설 및 작품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사안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무조건 적용하여 다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조건은 신축시설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 다른 사항들은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뉴질랜드에서 구성한 체크리스트의 세부 분류인데 세 가지 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다 상세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각 상황과 여건에 맞는 체크리스트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 공연시설 접근성 체크리스트 세부 분류



### 공연장 접근성 체크리스트 세부 분류

- |                                   |                 |
|-----------------------------------|-----------------|
| ▷ 외부에서의 이동과 접근                    | ▷ 바닥 및 실내 조명    |
| ▷ 입구영역 접근성                        | ▷ 청각 보강 시스템     |
| ▷ 공연장 내부 일반 접근성                   | ▷ 표지 및 사인물      |
| ▷ 내부 출입문과 출입구                     | ▷ 객석영역과 관객 서비스  |
| ▷ 공연장 내부 이동<br>(계단,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 ▷ 휠체어 사용과 대여    |
|                                   | ▷ 안내견 동반        |
|                                   | ▷ 화장실 관련 사항     |
|                                   | ▷ 비상대피로 및 대피 절차 |
|                                   | ▷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

## 다. 접근성 관련 업무의 수행

### 접근성과 관련한 일들은 누가 해야 할까?

접근성은 특정한 누군가만 노력해서는 쉽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공연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연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조금 더 나은 접근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총론과 본 공연시설 편에서도 접근성 매니저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접근성 매니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접근성 매니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각자가 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 더 나은 접근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를 읽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좀 더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연장과 공연작품이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각자 상황에 맞는 응용이 필요합니다.









### 3. 기획과 제작 : 접근성 높은 공연을 위한 준비

#### 가. 모든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가능할까?

##### ‘접근성 공연’과 ‘비접근성 공연’

현장의 일치된 합의는 없지만, 대개 ‘접근성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령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양한 접근성 수단들이 공연문화의 일부로서 활용되도록 사전에 기획된 공연을 의미합니다. 장벽이 없다는 의미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이라고도 불립니다.

접근성 공연은 제작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관객 등을 염두에 두고 예산배정, 공연의 연출방식, 홍보 및 마케팅 방법, 공연시설의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접근성 공연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공연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수어통역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연극 ‘슈퍼맨처럼-!’(극단 학전)부터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선보인 년버벌 마스크 연극인 ‘반호프-시즌2’ 등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반호프-시즌2’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수신 장치(FM 수신기)를 통한 음성해설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립극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국립극단 등 국공립 공연장과 기관/단체 등을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접근성 공연’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공연의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공연 제작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성 공연’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연 현장에 올라오는 여타의 수많은 공연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접근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접근성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에 아예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근성은 ‘보장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연을 위에서 말한 ‘접근성 공연’의 형태로 제작할 수는 없더라도, 모든 공연의 접근성을 조금씩 높일 수는 있습니다. ‘접근성’이란 1 또는 0이 아닌 점진적인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enc\\_num=PpbRSVj2thOnaztu78fA6A%3D%3D](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enc_num=PpbRSVj2thOnaztu78fA6A%3D%3D)  
더뮤지컬 매거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공연[No.137]’. 2015.02.27

요컨대 접근성은 보장하는 것과 보장하지 못하는 것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며, 그 사이 수많은 단계에서 세부적인 조정과 조율, 협상, 논쟁의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창작자 또는 관객의 접근성을 의식한다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실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접근성 공연’의 사례

2022. 7.1.부터 7.10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무대에서 공연된 극단 코끼리만보의 <잔인하게, 부드럽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 공연을 진행했다. 총 9회 공연 중 관객 모두에게 대사 일체를 전달하는 ‘개방형 자막해설’이 4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해설을 관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접근성 공연이 2회, 음성해설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폐쇄형’ 접근성 공연이 2회였다. 음성소개를 사전에 제공했으며 무대의 구조와 의상 등을 공연 시작 전 축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터치투어’를 9회 중 1회 제공하였다.

2022.11.4.~11.5.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진행된 현대무용단체 ‘시나브로가슴에’의 <구조에 구조>는 3회의 공연 모두에서 우퍼(진동)조끼를 원하거나 필요한 관객에게 제공하였고,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중 소리 정보에 대한 개방형 자막해설을 제공하였다. 또한 제작 과정을 기록해 예술극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접근성 공연’의 반대편에 있는 사례는?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공공기관 주최로 기획된 공연은, 계단 이외 별도의 접근방법이 없는 공연장 2층에서 진행되었다. 휠체어 사용자인 관객은 공연 수일 전 이동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공연장의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유로 특별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대사 전달 수단이 없는 사실상 대부분의 공연들을 반대편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구조, 지원 인력을 두기 어려운 사정, 작품의 특성, 저작권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관람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많은 공연들이 ‘비접근성’ 공연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접근성을 대하는 태도, 어느 정도까지 접근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노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공연의 제작 및 기획 단계에서 고려하면 좋은 요소들

### ‘우리 공연을 보러 올 관객들은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면 혹은 제작 초기 단계에 있다면, 그 공연을 보러 올 다양한 관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기를 제안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구체적인 관객 가운데는 누가 있나요? 눈이 보이지 않는 관객? 휠체어를 타는 관객? 천식이 심해서 기침을 자주 하는 관객? 고령으로 보행이 어려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도 ‘접근성 공연’이 필요한 관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를 위해 완벽한 접근성’을 확보한 공연을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체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고, 바로 ‘그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공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를 제작 단계부터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커다란 보조견 ‘근성이’와 함께 다니는 한 시각장애인 지인 A를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공연이 진행될 공연장에는 동물 출입이 가능한가?

공연장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은 거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공연장의 환경이 비좁고 함께 착석하기 어려운 등등의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다면 ‘근성이’가 대기할 바깥 공간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공연이 진행될 공연장의 위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출입구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우리가 제작하는 공연에서 ‘시각정보’는 얼마나 중요한가?

아직 프로덕션의 초기 단계이므로 작품의 형식이나 공연장의 구조는 상세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떠올린 ‘근성이’와 지인 A씨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한지 기획단계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출입구 앞에 점자블록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만약 파손되었다면 미리 보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근성이’가 대기할 공간이 없다면 아예 공연장 안에서 함께 공연을 볼 수는 없을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연에는 엄청나게 큰 소리나 빛이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훈련받은 동물이라지만 ‘근성이’가 놀라서 짖지는 않을까?

이쯤 되면, A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A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A가 아닌 A와 비슷한 조건의 B와 C를 위한 접근성을 이미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B와 C라는 관객을 적극적으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을 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각장애인 B와 C라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혹은 A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너무 좋다! 네 공연 기대된다. 공연 볼 때는 근성을 데려가지 않고 시각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는 게 편해. 대신 공연장 앞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 이제 ‘근성이’에 대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은 이동지원을 할 사람이 있는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도, 어떻게 이동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 방법 같은 것은 인터넷에 다수 소개되어 있습니다. A에게 물어보는 것이 물론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A뿐 아니라 B와 C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각장애인, 예를 들어 B는 반드시 보조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라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다고 하여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다 해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B의 보조조건 ‘접근이’를 무대 안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지, 어렵다면 주변에 ‘접근이’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을지를 여전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모든 경우에 대한 접근성을 완벽히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람을 떠올리고, 가능한 것에서 시작해 봅니다. 특히 공연의 제작 초기 단계라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것입니다.

### **접근성 매니저 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단체 또는 시설 내에 제안하기**

공연계에는 2020년대에 들어 ‘접근성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매니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공연계를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공연에서 접근성 매니저는 기존 공연 시스템에 존재하는 장벽을 발견하고, 장애인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연 제작진, 공연장, 관객들 사이에서 조율과 협의를 통해 그 장벽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접근성 매니저는 공연장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도 있고, 극단 등 제작팀 소속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작품 단위로 외부에서 제작팀에 합류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공연장이나 제작팀의 조건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어렵다면 접근성 매니저로서 공연 제작에 참여해 온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웹진 이음, 서울문화재단의 웹진 연극인 등에는 접근성 매니저로 참여한 공연인들의 인터뷰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관객과 더 잘 만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배리어프리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팀의 욕구와 지향하는 목표를 이해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작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배리어프리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작업자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 주장해야 하나 고민된다.

장애인 창작자를 만나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장애 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배리어프리 공연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고,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 강보름 연출/접근성 매니저, ‘동료 시민으로 공존하기 위한 연결’  
웹진 이음(2021. 7)<sup>2</sup>

접근성 매니저는 공연의 기획과 제작, 홍보 등 전반적인 접근성 연관 업무, 공연 현장 접근성 지원, 공연장 하우스나 티켓팅과의 협의 등 공연예술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업무 영역이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으며, 공연 프로젝트와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맡는 역할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접근성 매니저 혼자서 공연 전반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접근성 매니저는 공연 접근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고민과 실천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접근성 매니저 없이도 훌륭한 접근성 공연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https://www.iejum.or.kr/user/webzine/view.do?idx=155>

## 우리 공연이 목표로 하는 접근성 수준에 대해 함께 의견 나누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물리적, 감각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의 기획과 연출, 진행 전반에서 접근 가능한 제작환경과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싶다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7. 접근성 공연의 사례들 - 창작의 일부로서의 접근성’ 관련 내용을 통해 공연의 기획과 제작에 있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작진 전원이 장애와 공연예술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함께 읽어볼 의향이나 여력이 있나요?

프로젝트에서 휠체어 등이 접근 가능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한 접근이 가능한 공연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관객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공연 기간 상주시킬 수 있나요?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음성해설 서비스를 공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전화차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회차 가운데 일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 공연에서 음성해설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청각장애인 관객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대본을 제공하거나,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관객에게 사전에 무대와 주요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대안적 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나요?

제작 전반에서 접근성에 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거나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나요? 꼭 필요한 경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출가/안무가, 무대디자이너, 공연장의 운영자와 관리자는 각자의 창작 방법론, 창작 의도, 기존의 공연장 운영 관행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이 있나요?



## 장애인 창작자(공연자 및 스태프)의 참여시 고려해야 할 접근성

- ▶ 프로덕션(제작)에 장애인 창작자와 함께하는 경우
- ▶ 장애인 창작자와 함께하는 프로덕션(제작) 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내세울 만한 장애인 중심 극단과 창작 집단을 비롯하여 다수의 장애 당사자 배우, 연주자, 무용수는 물론 기획자 및 연출가와 기술 스태프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각본과 배역에 주요한 역할을 맡은 작품 <인정투쟁; 예술가 편>과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각각 <2017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과 <2020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수상했으며, <틴에이지 덕>에서 ‘리처드 글로터스’ 역을 맡은 하지성 배우는 개인으로 <2023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2] 무장에 공연 <틴에이지 덕> 포스터



©국립극장



공연 등의 작품 제작과정에서 장애 당사자가 함께하는 경우, 장애인 배우와 스태프 등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지적 장애 배우 등 장애인 창작자를 위한 제작과정에서도 ‘접근성 매니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예산의 한계를 비롯한 현실적 이유 등으로 창작 과정에서부터 접근성 매니저를 두기 어려운 경우, 기획자, 제작PD 등 주요한 스태프들이 접근성 매니저(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함께하는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역할 분담을 통해 접근성의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장한다거나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작업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정한 ‘마음 씹씹이’ 이상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순간과 경험 ‘정도’는 ‘당사자들이 익히 겪고 있는 정도’이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당연한 것은 아니며, 분명 빈도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료를 도와 다 함께 지하 연습실로 내려갔는데, 어쩌다 보니 잠깐의 휴식 시간에 모두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바람을 쐬다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동이 어려운 이 혼자 안에 남겨지는 순간

같은 공간에 계속 누구든 들락날락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동료만이 상황을 느끼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

모두 웃는 등 공통된 반응에서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나 농인인 동료만이 무표정이거나 ‘뭐지?’하는 순간

‘접근성 공연’을 준비하거나, 창작자 중 장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비장애 배우 등 구성원이 먼저 전체 프로덕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오리엔테이션을 권리이자 의무 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장애) 예술성’과 함께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휠체어 사용자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창작자

먼저 연습실 등 작업과 제작 환경에서부터 휠체어 사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많은 연습실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갖춰지지 않은 지하 등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연습실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예산)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실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지만, 화장실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찾아보기, 화장실 등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해주기, 예기치 않은 급한 경우에도 서로 민망하거나 번거롭게 느끼지 않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등 ‘감수성의 규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대기실이나 분장실의 접근성 체크도 필요합니다. 연습과 공연 이후, 창작 집단 내 진짜 교감이 이루어지는 회식 자리에게까지 접근성 챙김은, 창작 집단의 회식 메뉴 선택만큼/보다 중요합니다.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인은 그 정도에 따라 지체장애와 비슷한 요구 사항 혹은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은 접근성에 있어 지체장애와 유사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경직 등으로 발음이나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연습 시간 등을 보다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애 당사자가 객석뿐만 아니라 무대 위까지 접근 가능하다면, 혹은 오케스트라 피트와 백스테이지, 더 나아가 오퍼레이션 콘솔(조정실)까지 접근 가능하다면.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장애 예술’ 자체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 <Deaf West Theatre>의 작품 <The Solid Life of Sugar Water>는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디자이너도 농인이었습니다.

[그림 3] <The Solid Life of Sugar Water> 작품 속 장면



©Deaf West Theatre

‘모두예술극장’처럼, 오퍼레이션 콘솔(조정실)까지 무단차로 조성되어 대형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다면, 중증 지체장애인도 충분히 연출이나 음향, 조명 스태프로 그 창작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모두예술극장의 무단차 오퍼레이션 콘솔



©모두예술극장

## 색약, 색맹, 저시력(약시), 전맹 등 시각장애 창작자

전맹인 경우보다는 저시력(약시)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각장애의 경우 각각의 시력 차이가 크기에, 무엇보다 목소리 인사 등을 통해 상대를 인지/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떠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역시 인사나 소리를 통해 항상 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안내 등을 위해서라도 예고 없이 먼저 몸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며,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터치 등과 같은 친근감의 장난은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일단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 주변의 상황을 최대한 묘사해(알려)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물어보거나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충실히(성의껏) 알려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등과 같은, 눈짓이나 손짓으로 가리키는 것과 함께 쓰는 지시어보다는 ‘오른쪽’, ‘왼쪽’, ‘몇 걸음 앞’, ‘몇 도 위’, ‘시계 몇 시 방향’ 등 네비게이션의 음성 안내와 같은 방식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점역, 점자 인쇄 등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글자(폰트 크기) 등 확대된 인쇄물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의 인쇄보다 텍스트(txt) 파일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자보다 녹음 파일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 등 시각장애 공연자의 경우, 연습 환경과 무대 환경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대중으로 동선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배우와, 미리 맞춰둔 보폭과 발걸음 수로 동선을 짜는 배우는 다릅니다.

기준점, 안전 사항 등 중요한 표식(사인)이라면, 기존의 야광 테이프 마킹, 빨강/노랑 색상의 경고 등 비장애인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식 이외에 점자 블록, 핸드 레일 표식, 색약, 저시력(약시) 등을 위한 큰 글자의 병기 등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 연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점역 악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악보보다 ‘가이드 레코딩’을 선호하고, 암보(암기)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악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크린 캡처(화면 저장)’ 등으로 만들어진 ‘텍스트 이미지’ 사용을 지양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쉽게 주고받는 사진 등 ‘이미지 파일’에 주의하여 내용 설명 등을 덧붙여주도록 합니다.

### 보청기, 인공와우 사용자, 난청, 농인 등 청각장애 창작자

같은 청각장애로 분류(등록)된 경우라도, 인공와우나 구어(입술 모양 읽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매우 다릅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어통역이 있을 때도 청각장애 당사자를 향해 말하도록 하며, 수어통역자를 향해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소리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개의 소리가 섞이는 것은 매우 알아듣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말하지 않으며, 손동작 등으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 이상의 농인은 수어에 익숙한 편이며, 그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 및 청년 농인들은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수어뿐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한 의사소통에도 익숙합니다.

속기사 등 전문 문자통역이 있다면 좋겠지만, 전문기관의 문자통역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의 음성 인식 서비스 등을 이용해 노트북이나 태블릿, 각자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 다운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정신장애 창작자

이제는 ‘스펙트럼(spectrum; 주로 빛을 프리즘 등의 도구로 색깔에 따라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이라는 용어가 장애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은 그 각각의 상황과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장애/비장애를 떠나서 모든 동료들 간의 관계가 그렇지만, 발달장애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개별적인 특성 파악(이해)과 당사자와의 신뢰 및 유대(라포) 형성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창작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동반인이 아닌 당사자에 직접 말하고 의견을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해주기와 반복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대본 등을 쉬운 말(easy read)로 다시 써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다룬 작품들의 증가만큼이나 창작자들 중 정신장애 당사자가 있는 것 역시 특별히 이상하거나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장애 유무와 유형을 밝힐 필요도 없으며, 밝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따른 ‘차별’이기도 합니다. 프로덕션 혹은 공연 일정 중 예기치 않게 드러나거나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경우, 뇌전증 등 내부 기관 장애

신장의 기능 이상 등으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피로도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 연습 시간과 순회공연(투어) 일정에 투석 일정과 주변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심장 장애나 호흡기 장애는 기구의 종류와 사용 여부에 따라 콘센트 등 전기의 공급과 정전 대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질, 뇌전증 등은 안정 취하게 하기, 투약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루 장애는 드러나지 않게 배변 주머니 등을 착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등 더운 날씨에 옷차림과 의상, 탈의실, 화장실 사용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세심한 배려는 존엄성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하나 이상의 중복장애 창작자

창작자 중 하나 이상의 복수 장애가 있는 창작자의 경우 앞서 안내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에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창작자가 농인 기반의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 한 사람당 2명 이상의  
출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대응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려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장애인 창작자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더 나은 공연 제작 환경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 장애를 가진 창작자와 공연팀 전체의 협업 사례

<지하 1층 연습실 앞에 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배우>

A: 휠체어를 사용하는 연극배우

B: 연출자

C: 접근성 매니저 겸 조연출

배우 A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연극배우로서, B 연출의 공연에 배우로 참가하였습니다. 이 공연팀에서 장애인 배우는 A가 유일했습니다. B 연출은 배우 A 및 제작팀에서 접근성 매니저 역할을 겸임하는 조연출 C와 함께 A가 접근하기 쉬운 연습실을 찾았지만 대부분 예약 완료된 사정으로, 주 4회 연습 일정 가운데 2회는 부득이 지하1층 연습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B 연출은 배우 A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 작업 전체를 다음 시즌으로 미루지 고민했고, 진행한다면 주 2회는 연습실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나머지 2회는 온라인에서 연습을 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배우 A, 연출 B, 접근성 매니저 C는 이 문제에 관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배우 A가 말하기를,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지만 누군가가 양쪽에서 부축한다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무게가 100kg이 넘어서, 지하 연습실로 그 휠체어를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A, B, C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끝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지하 1층 연습실에서 연습을 진행하는 날에는, 배우 A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을 공연팀 구성원 중 2인이 지원한다. 2인은 자원을



받아서 정하고, 그 두 사람은 A의 보행을 어떻게 보조해야 하는지 A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배우 A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2. 배우 A의 전동 휠체어는 건물 1층 출입구에 (경비원께 허락받은 후) 보관하고, 대신 수동 휠체어를 대여하여(대여가 어렵다면 제작비에서 구매한다. 일반적인 수동 휠체어의 가격은 20만 원 내외다) 연습실에 비치한다. 배우 A는 연습실에 내려왔을 시 그 휠체어를 탄다. A가 혼자 수동 휠체어를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B와 C가 연습실 내 이동을 지원하기로 한다.
3. 공연장에서 A는 자신의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연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하 연습실에서 이용하는 수동 휠체어는 A가 배우로서 자신을 훈련하는 데 한계가 매우 클 것이다. 그렇기에 지하1층 연습실에서의 연습은 주로 A의 동선이 작은 장면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연습 스케줄을 일부 조정한다.
4. A가 지하 연습실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으려면,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을 진행하는 날은 A가 다소 여유 있게 연습실에 도착하며 신발과 옷 등을 최대한 편안하게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지원하는 단원들에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 방법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한다.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이 진행되는 날, A의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눈비로 인해 계단이 미끄러울 때는 연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공연팀이 선택한 A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방안은 물론 불완전하며, 다소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A의 신체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접근성 매니저나 연출이 A에게 위와 같은 이동방식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창작자가 참여하는 경우 연습실 등 공연 제작 환경에 있어 일반적인 스케줄보다 여유 있는 확보가 필요합니다. 접근이 원활한 공연시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접근성을 일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창작자와의 작업에 거리를 두거나 지나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보통 계단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주변의 지원을 받아 보행이 가능하고, 혹은 엮거나 안아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업히거나 안겨서 이동하는 것은 종종 무례하고,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접근성 지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장애 유형에 따른 일률적인 매뉴얼이 한계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있고 서로가 제한된 조건에서 서로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접근성은 연출가나 안무가, 접근성 매니저, 장애인 당사자 등 누군가의 고유한 책임이 아닙니다. 연출가나 안무가는 연습의 내용과 스케줄을 조정하고, 접근성 매니저는 팀 내부와 외부에서 대안을 찾고, 공연팀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역시 접근성 지원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대안을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함께 접근 가능한 공연제작 환경을 만들어 가는 주체입니다.

## 다. 제작 및 기획 단계에 주요하게 참여해야 할 인력

### 제작 및 기획단계의 인력과 접근성 관련 업무

작품과 프로그램의 기획자, 제작자, 연출가, 공연시설의 경우 운영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극장장, 공연장 대관 담당자와 프로듀서, 하우스팀, 안무가, 작가, 출연자(배우, 연주자) 등이 이 단계에 관련된 주요한 인력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서 접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공연작품 또는 우리 공연시설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등을 통해 스스로 새롭게 직무를 구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연출가의 경우 접근성을 수용하면서도 기존의 연출 의도를 유지하고 때로는 접근성을 통해 연출 의도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출가의 이런 관점은 다른 모든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과 접근성의 이슈를 접목하여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 4. 홍보와 마케팅 : 어떻게 알리고 전달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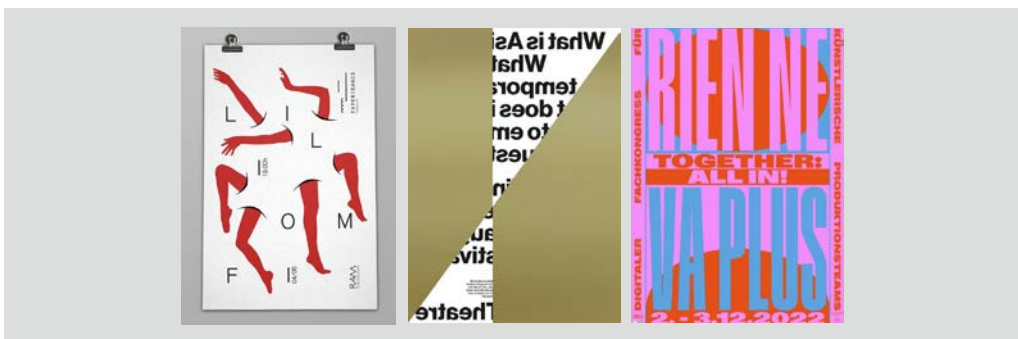
### 가. 홍보와 마케팅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 홍보마케팅에서 고려가 필요한 부분

공연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홍보 매체는 오프라인형인 전시 배너 등과 온라인형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 홈페이지 등의 플랫폼입니다. 이때 고려하면 좋을 접근성 요소로는 포스터나 홍보 이미지의 단순화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방문객의 경우 복잡한 이미지와 제목, 공연 일정 등 내용이 겹쳐 있거나, 공연에 대한 설명과 내용 없이 이미지만 있는 자료의 경우 내용을 인지하기 힘듭니다. 색이 많이 있는 복잡한 이미지와 문자가 겹치면 가독성이 낮아져 정보를 인식하기 힘들며, 온라인 상에 공연에 대한 정보가 이미지로만 되어있으면 시각장애 방문객이 텍스트 음성 변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 5] 한눈에 알아보고 읽기 어려운 포스터 예시



©Ram Colosseum,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그림 6] 비교적 공연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포스터 예시



©Glastonbury Festival/Stuart Rogers Studios/국립극단

## 접근성 제공 여부와 수어해설 QR코드를 포함하는 포스터와 예매공지 사례

[그림 7]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8]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예매공지

### 예매공지

#### [공연 소요시간 변경 안내]

공연 소요시간이 (기준)80분에서 (수정)75분으로 변경되었으니, 관람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공연 시작 후 입장이 불가합니다.

#### [접근성 안내]

- 자막해설: 전화차 공연에 대사, 소리 및 음악 정보, 그림기호 등이 표기된 한글자막이 있습니다.
- 수어통역
  - \* 전 회차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 \* 중앙 1,2열은 자막 위주로 관람하시기에 용이합니다. 중앙 3,4열은 자막과 수어통역을 함께 보기에 용이하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어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야를 고려한 좌석 예매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보통: 공연관람일 1일 전까지 010-2069-7202로 연락주세요. 공연 당일 해파역 2번 출구에 안내자가 대기하겠습니다.
- 휠체어석
  -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휠체어석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 \* 휠체어석 이용 관객은 예술극장 고객지원센터 02-3668-0007로 전화 예매만 가능합니다.
  - \* 아르코예술극장에는 7개의 화장실이 있고, 이중 3개의 화장실 안에 휠체어 전용칸이 있습니다.
- 전화예매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관객은 예술극장 고객지원센터 02-3668-0007로 전화해주세요.
  - \*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19:00 (월.휴, 점심시간 12:00~13:00)
  - 문자예매: 통화가 어려운 경우 010-2069-7202로 연락주세요.
  - 오시는 길: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4호선 해파역입니다. 해파역 2번출구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파역 2번 출구에서 아르코예술극장까지 도보로 2분 소요됩니다.

#### [공연 영상 촬영]

- 9/14(목) 회차에 기록용 영상촬영이 진행됩니다.
- 가구역 0번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됩니다. 카메라는 객석 뒤편에 설치됩니다.

#### [관객과의 대화]

- 9/12(화) 공연 종료 후 30분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 문자통역이 진행됩니다.
- 사회자: 심지후 연출 (2021년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연출)
- 참석자: 전서아 작가, 강윤지 연출, 권은혜 배우, 이정 배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에서 제공하는 접근성의 내용을 홍보 시 표기

‘접근성 지원(해당 공연에서 어떤 접근성 관련 서비스를 준비했는지)’ 정보는 홍보물이나 공지 내용에 표기해 자세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물 제작 시 ‘접근성 지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며 기관 상황상 지원이 어려운 접근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물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 공연이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을 충실히 준비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연이 어떤 사람들을 관객으로 의식하고 환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접근성을 마련하는 일은 특히 소규모 공연장이나 단체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성에 관한 홍보문구를 작성하면서 공연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현재 조건에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 지원’ 항목에는 접근성에 관해 문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음성(전화) 또는 문자(카카오톡 등)로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한 연락처를 준비하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기관에서 고려해 보지 못했던 접근성에 대해 장애 당사자가 먼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웹) 접근성

공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티켓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는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KWCAG(한국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기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좋으나 이는 최소 요구 사항으로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를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장애인은 웹상에서 제공되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을 접했을 경우 한눈에 재빨리 내용 파악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하며, 웹사이트 내에 동영상이나 오디오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를 문자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하여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움직임이 느린 사용자를 위해 시간 조절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당장 시간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연에 대한 홍보 이미지만 올라오는 게시물을 피하고 이미지와 함께 공연에 관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써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글씨로 작성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팝업창 등이 많이 생성되는 것은 정보를 얻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Ⅰ [표 2] 각 장애 유형 및 특징에 따른 보완 대책 종합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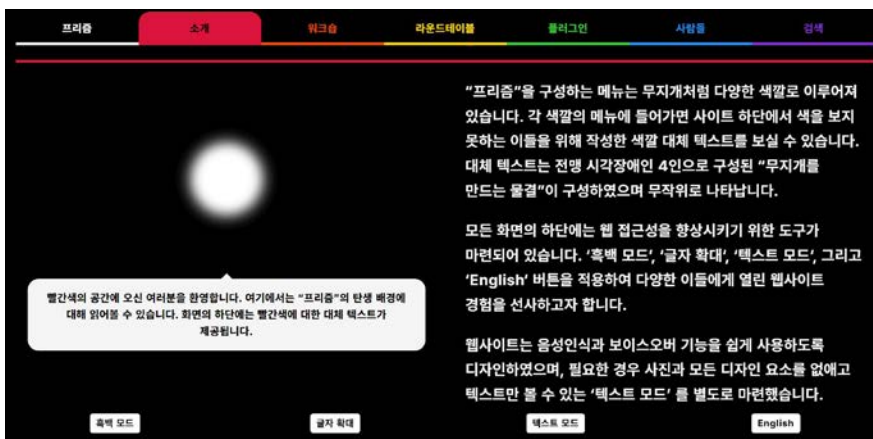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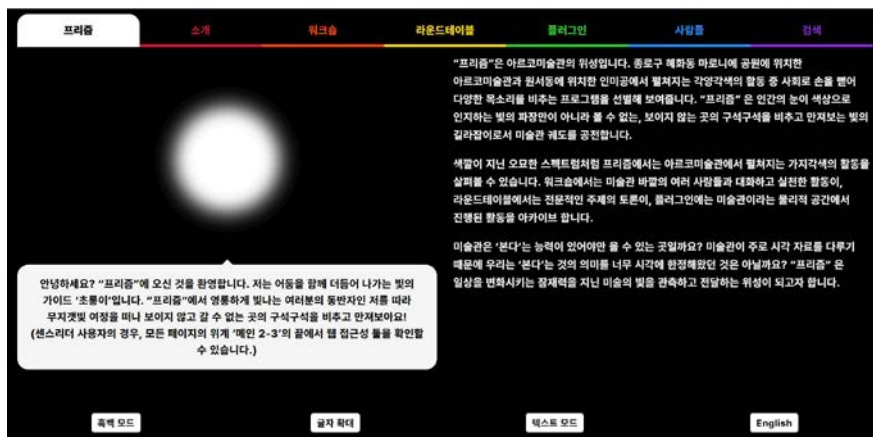
장애 유형		특징	보완 대책
시각장애	전맹	모니터 속 내용 확인이 어려움	스크린리더
	저시력	모니터 사용이 일부 가능함	큰글씨/화면 확대/고대비
	색맹	특정 색을 구별하기 어려움	색상에만 의존하지 않기/고대비
청각장애		사운드 등을 청취하기 어려움	수화, 시각정보 제공
지체장애	상지장애	손을 사용하기 어려움	마우스 대체 방법, 키보드만 사용
	기타	기타 움직임이 어려움	충분한 시간 제공
발달장애		복잡한 용어, 어려운 용어의 이해가 어려움	쉬운 용어 및 인지가 쉬운 이미지/아이콘 사용



## 사례 :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홈페이지 ‘모두를 위한 프리즘’

흑백모드, 글자 확대, 이미지를 제외한 텍스트 모드 전환, 영문 제공 등

[그림 9]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홈페이지 ‘모두를 위한 프리즘’ 발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사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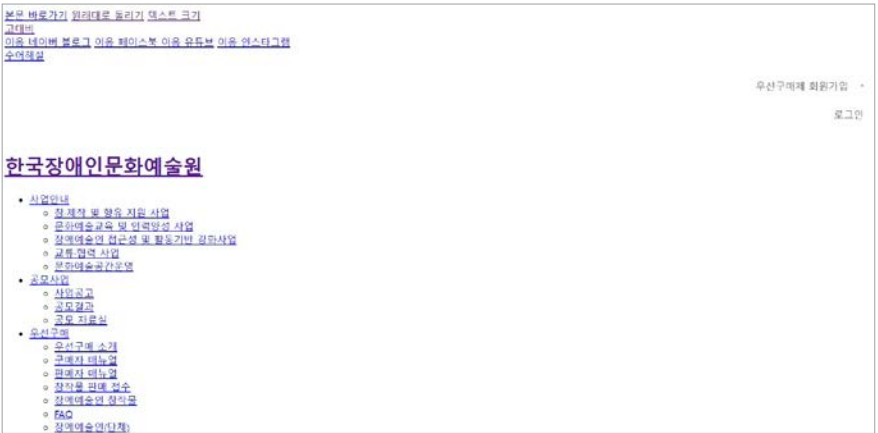
텍스트 모드, 글씨 확대, 고대비 모드 제공 및 홈페이지 수어해설 영상 제공 등

[그림 1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일반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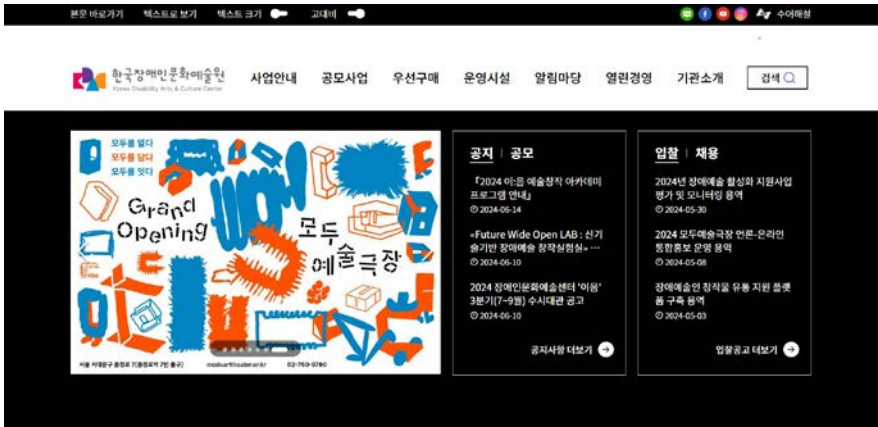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림 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텍스트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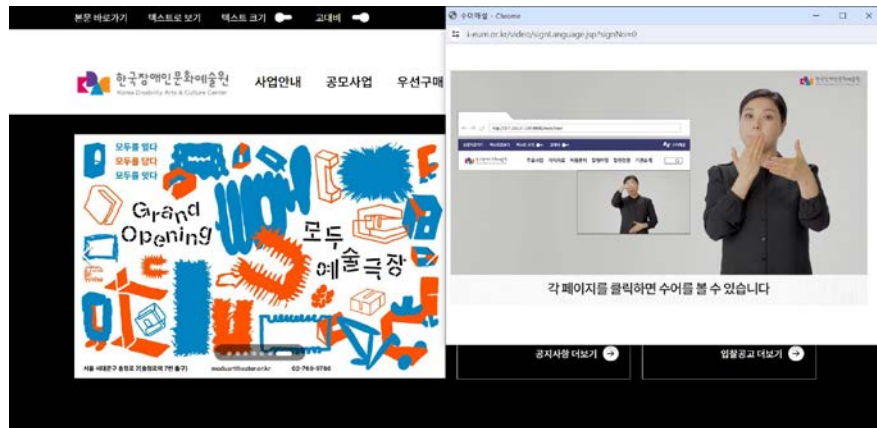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림 1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고대비 모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그림 1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 접근성 지원 정보의 표시 (예시 1)

접근성:

전화차 문자통역

0월 00일(토), 00일(일) 공연 및 관객과의 대화 수어통역

0.00(일) 공연 음성해설

공연장 인근 및 내부 이동지원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고정식 좌석에 옮겨 앉아서 보시기를 원할 경우 문의주세요.)

그 밖의 접근성 지원에 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0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수어가 편하신 경우 문자로 간단히 요청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 접근성 지원 정보의 표시 (예시 2)

접근성:

장애인 주차구역 (2대)

공연장 내에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공연장에서 5분 거리의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공연 관람에 필요한 접근성에 관하여 000-0000-0000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함께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나. 아직 만나지 못한 관객을 위한 마케팅

### ※ 접근성 및 마케팅 사례

#### 사례1) 공연팀이 직접 녹음한 팸플렛

2021년 12월 서울에서 진행된 공연 <무용수-되기>의 프로듀서 A는, 이 공연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연의 내용과 출연진 등의 정보를 담은 웹 팸플렛의 내용을 직접 읽고 녹음한 음성파일로 제작했습니다. 웹 및 모바일 기반 홍보물의 경우 웹 및 모바일 접근성 원칙을 준수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은 개인의 모바일 장치에 내재된 TTS(Text To Sound) 기능을 이용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에서 프로듀서 A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와 톤, 발음과 속도로 공연 팸플렛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시각장애가 있는 관객은 TTS 기능으로 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의 정보를 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공연 포스터 디자인이 공연의 개요나 공연일시와 같은 정보 값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질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연에 특유의 청각적 요소를 정체성의 하나로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프로듀서 A는 이 공연의 공연장 앞에서 관객을 만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홍보물을 미리 접한 시각장애인 관객은 공연장 안에서도 A를 찾아가 안내를 받거나 접근성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기에도 더 편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14] 2022 PAMS CHOICE<무용수-되기>



## 사례2) 발달장애인이 직접 공연을 소개하는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 영상

[그림 15] 뮤지컬 <마틸다>의 홍보영상 캡처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

2018년 영국의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은 뮤지컬 <마틸다>의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 홍보영상<sup>3</sup>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공연 중 언제나 공연장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고, 지나치게 큰 소리가 나지 않으며, 너무 어둡거나 밝은 조명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이 가진 여러 요소를 안내합니다.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사람 중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반짝이는 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연장에서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모자를 쓴 사람을 찾으라고 알려줍니다.

쉬운 언어와 직관적인 표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진행 등의 요소를 갖춘 이 영상은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이 필요한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공연을 알리고, 접근성 지원을 안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 단, ‘접근성’에 관한 실천들에는 언제나 정답이 없고 논쟁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위 영상에서 우리는 공연장의 안내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짝거리는 모자’를 사용한 아이디어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어린이 관객들이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되는 방법과 유사한지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성인 발달장애인 관객을 발달장애가 없는 성인 관객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3. <https://youtu.be/ijbauFKN9eA?si=CEGSPmM5Fo3UJGqF>

## 다. 홍보와 마케팅 단계의 주요한 인력

### 홍보와 마케팅 단계의 인력과 접근성 관련 업무

홍보마케팅 단계에서는 공연시설의 관계자, 작품 참여자 외에도 각종 디자인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일시적인 외부 관계자들도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홍보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작품 팸플렛의 내용이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정리되었는지부터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는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반영했는지, 점자와 같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나 SNS 담당자는 해당 콘텐츠들에 접근성을 고려한 표현과 디자인들이 적용되었는지, 각종 홍보문구에 접근성을 고려한 반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수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 5. 방문과 관람

### 관객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제작팀으로서 혹은 공연시설의 관계자로서 함께 준비한 공연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시설이 어떤지, 작품은 어떤 형식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공연은 처음부터 ‘접근성 공연’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완벽하고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이 시작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준비 과정에서 접근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림 16] 공연시설 관람객 여정의 단계예시



사전-관람-관람 후 사후 단계의 총 3단계에서, 공연장에 방문하게 된 장애인 관객의 여정을 따라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관객이 공연시설에 도착부터 귀가까지 이루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여러 시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점검해보는 과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공간과 시설 여건에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불편과 장애요소들을 점검하고 해소해 가는 과정이 곧 관람층을 넓혀가는 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 운영자는 계획과정과 프로그램들의 운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 가. 사전단계 : 방문 결정부터 도착까지

### 집에서 공연장까지 (공연장에서 집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공연장까지 오는 다양한 관객들을 미리 알고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관객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연장까지 별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통수단에 따라 몇 가지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공연장 인근의 지하철역이나 정류장에 도착하는 관객 가운데는, 공연장까지의 이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익숙하며 필요한 경우 역무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낯선 길이라면 출구부터 이동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출입구와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도보로 몇 분 정도라면, 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 보행으로 안내하는 이동지원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반드시 안내원의 이동지원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를 상세히 해설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나 일반 택시를 이용해 공연장 출입구 바로 앞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동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세요.

셋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경우 주차구역에서 공연장 출입문까지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놓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다면 진출입로에서 가까운 곳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재한 공연장의 경우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고, 그 주차장에서 공연시설까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퇴장할 수 없는’ 공연장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D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 A씨는, 어느 날 공연 시작 직전 한 관객에게서 휴대폰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다. 관객은 자신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연 시작 직전 미리 장애인 콜택시를 공연장 앞으로 불러두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언제 연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자신에게 배차가 되면 운전원에게 전화 연락이 오는데, 이 연락을 받지 못하면 다시 배차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자신의 전화를 지니고 있다가 운전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전화를 받아 도착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A는 관객의 말대로 공연 시간 중 휴대폰을 보관했고, 공연이 거의 끝날 무렵 보관하고 있던 관객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약 30분 후 도착한다고 말해주었다. 관객은 공연을 마치고 휴대폰을 받은 후 잠시 뒤 도착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운영방식과 현황이 다르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통상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고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연이 자주 있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 오후에는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배차된 차량의 전화를 받지 못하면 다음 연결을 기다려야 하고 이때가 주말이라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공연장은 일반적인 강연이나 회의와 달리 중간 퇴장이 매우 어렵고, 공연 문화 상 공연 도중에 전화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하우스매니저 A씨가 관객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전화를 받아준 것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관객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었던 셈입니다. 공연적 시간과 장소의 엄격함(공연장은 대부분 지각하는 관객을 2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콜택시의 심각할 정도의 비정시성은 장애인의 이동과 공연 접근성이 맺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A의 행위는 이러한 상징적 관계를 아주 작은 실천으로 뒤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나. 관람단계 : 공연 관람부터 건물을 나서기까지

### 공연예매 단계에서 안내하거나 고려하면 좋은 요소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접근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미리 완벽하게 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매 과정에서 미리 접근성에 관해 필요한 요청을 받는다면, 그 요청을 고려하여 공연장과 공연단체는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성은 ‘언젠가 완벽한 시설과 예산이 마련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의 목표가 됩니다.

### 장애인 관객 우선 예매

접근성 요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관객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예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연장들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공연에 필요한 접근성 관련 정보 수집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접근성 지원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장 내 또는 주차장/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 이동지원이 필요합니까?

티켓 예매 및 공연 안내에서 수어통역/문자통역이 필요합니까?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이 필요합니까? 어떤 관람방식을 선호하시나요? 1) 고정식 좌석에 옮겨 앉아 관람, 2) 휠체어에서 관람.

전동 휠체어 사용자이십니까? 수동 휠체어 사용자이십니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견(보조견)을 동반하십니까?

접근성에 관한 문의 사항 또는 요청 사항이 있다면 아래 빈칸에 기재하시거나 000-000-0000으로 연락해주세요.

## ※ 예매 단계에서의 접근성 요청에 대응하기

ㄱ: 공연장, 500㎡ 이상의 규모

A: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B: ㄱ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

ㄱ공연장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가 넘는 곳으로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법령상 기준에 맞춰 운영하고 있었다. 공연장은 프로시니엄 형태로 객석은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객석 맨 뒷줄에 있었다.

공연 예매가 오픈된 후, 관객 A가 공연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은 누워서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공연을 보고 싶지만 현재 ㄱ공연장에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에서는 전혀 무대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관객은 방법이 없음을 문의했다.

ㄱ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 B는 고민에 빠졌다. 휠체어 위에 누워 있는 관객의 시점은 1미터 높이 정도이고, 휠체어는 길이가 1.6미터 정도로 기존의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 두 자리를 비우면 앉을 수는 있었지만, 분명히 무대가 보이지는 않을 것이었다.

B는 공연팀 및 공연장 시설팀과의 이 문제를 협의했고, 공연장과 공연팀은 다음과 같이하기로 결정했다.

문의를 한 관객 A의 좌석은 무대 바로 앞 1열에 마련한다. 다만 1열로 가기 위해서는 공연 시작 전 공연장 건물에서 무대 뒤편으로 연결된 통로로 진입하여, 무대를 가로지른 후 1층 객석으로 가야 한다. 공연팀은 이렇게 관객 A가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다만 일부 배우들은 공연 직전 A가 지각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A가 무대를 가로질러 객석 앞까지 이동한 후에는, 무대에서 1열 객석 사이에 있는 계단 3개 정도의 높이를 세 사람이 휠체어 채로 들어 올려 내려간다. 그런 후 A는 1열에서 무대 뒤편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의 4번, 5번, 6번 객석 바로 앞에 객석들과 수평으로 휠체어를 고정해 채 관람한다. 공연장은 1열 객석 3자리를 관객 A에게 티켓 한 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는, 공연예술에 관한 이 가이드북의 다른 사례들처럼 실제 사례를

얼마간 변형한 것입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에 따라 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출입구(보통은 관객이 아닌 배우나 공연운영팀들이 이용하는 무대 쪽 출입구)를 이용하면 장애인 관객이 훨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팀들이 이를 불허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장애인 관객을 위해서 공연장이 세 개의 좌석을 포기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의견이나, 이렇게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공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례에 등장하는 A라는 인물(그는 실존 인물을 밝혀 둡니다)은 평생 공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A와 유사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뜻깊은 실천이라도, 위 사례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제기되며 이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만약 여러분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대관 계약을 맺은 공연팀의 기획자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했던 대로, ‘우리 공연을 보러 올 구체적인 인물’을 떠올렸고, 그 사람이 A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공연의 연출가와 의견을 나눕니다. 우리 공연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공연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A와 같은 사람도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출가는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물음을 붙잡고 공연을 만들어갔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공연장에서 올릴 공연은, 아예 무대 위에 의자를 놓고 관객들 모두가 무대 위에서 보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약간 어리둥절하지만, 이제 A가 1층에서 무대 뒤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무대 위에 말 그대로 ‘누워서’ 공연을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접근성’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과 고려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공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출입구 및 매표소**

공연장에 도착한 관객은 주요 출입구를 지나 매표소(티켓박스)로 가서 관람을 위한 티켓을 받고 입장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출입구에 계단은 없나요?



출입문이 너무 무겁지는 않나요?

출입구부터 매표소까지의 동선은 간단한가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매표소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경로표기(점자블록 등)가 있나요?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블라드나 전동킥보드 등이 통행 경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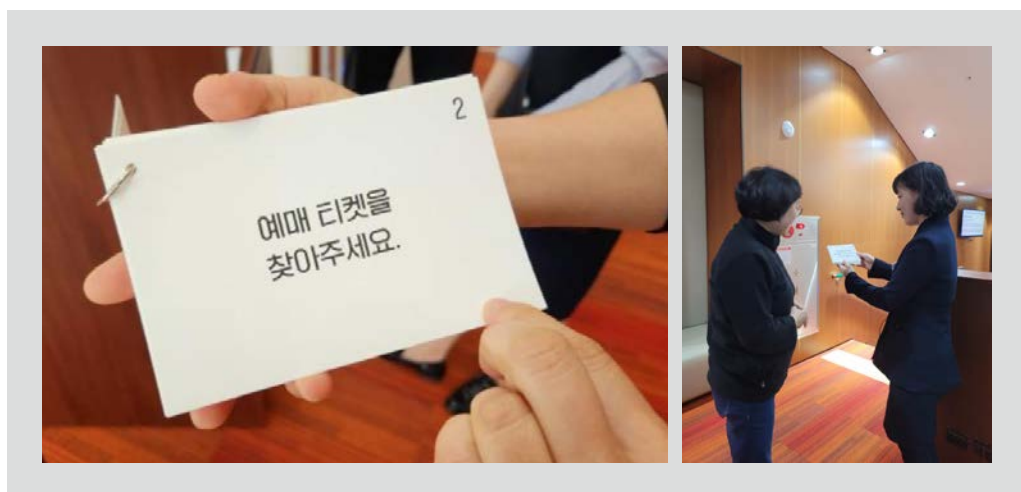
일정 규모 이상(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공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의 경우 주 출입문과 매표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그 법령상의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근성과 관련한 안전상의 이슈는 챕터 6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안내 및 예매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나요?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립뷰(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마스크를 추천합니다. 립뷰 마스크는 청각장애로 입 모양을 읽어야 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안내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입말 카드의 형태로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7] 국립극장 하우스매니지먼트팀 입말카드



##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지하 소극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사실상 없으나,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상시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 약자인 관객과 의견을 나눈 후, 관객을 보조하여 계단을 내려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자신의 이동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너무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계에서 부족하거나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면 업거나 안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이상이 지원하면 더 안전합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수동 휠체어를 두세 명이 들어 올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 전동 휠체어는 절대로 들어서 옮기지 않습니다.)

출입구에 약간의 단차가 존재할 때는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는 장애인 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대여 사업을 하기도 하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경사로를 건축물의 구조상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경사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출입구에서 대표소까지 이어지는 경로의 경우, 시설 접근성 이외에 접근성을 증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노력은 의사소통 및 관객 응대 방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어떻게 대화하고 안내해야 할까요?

장애를 가진 관객 등을 어떻게 안내하고 응대할지를 런던 극장 연합(Society of London Theatre)이 만든 가이드는 여러모로 참고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동행/통역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말하라.”**

어떤 사람이 공연장을 방문했든, 그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 옆에 수어통역사, 활동지원사, 비장애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하여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아니며 필요한 사항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안내합니다.

“공연장을 처음 방문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연장에 특화된 용어(예를 들면 ‘박스오피스’)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다른 적합한 용어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라. ‘박스오피스로 가세요’ 대신 방향을 특정해 ‘당신의 티켓을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그들을 거기까지 안내하라.”

“시각 손상을 가진 누군가에게 ‘저쪽에’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왼쪽으로 돌아 다섯 걸음을 가면, 매표소에 도착할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는 걸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라.”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말을 시작하기 전에 청각장애인이 당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라.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와 입술 모양을 왜곡시키므로 소리 지르지 말라. 보통의 말하기 리듬으로 명확히 이야기하라. (…중략…) 고개를 가만히 유지하고, 고개를 돌려야 할 때는 말을 멈추라.”

입술을 읽을 수 있도록 말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잠시 벗거나 불가피한 경우 앞서 언급한 ‘립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위 가이드가 제시한 대로 소리를 너무 크게 내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작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가 있는 관객을 골라내어 야단을 떨지 말고, 적절하고 신중한 도움을 제공하라. 무리하느라 접근 가능한 공연장으로 가는 어려운 과정을 망치지 말라”

런던 극장 연합의 가이드는 위 내용을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접근성을 증대하는 일은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일이지만, 경험이 쌓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공연장의 시간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도 ‘야단을 떨’ 필요가 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런던 극장 연합의 가이드 역시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규칙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이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만약 실수한 것을 알았다면 사과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계속하라. 실수가 대화의 나머지를 망치도록 두지 말아라. 진정하고 - 유머 감각을 가지라!”

###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계단을 통하지 않고도 접근 가능한 곳에, 무대로의 시야가 확보된 일정 이상 넓이의 공간이면 좋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가

좋으며 관람석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안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된다면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장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 제일 뒷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난청인을 위하여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 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에는 다양한 관객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경우 공연시설의 객석 운영 방침이나 관객 응대 방식에 따라 물리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각 관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장시간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꼭 휠체어에 앉은 채로 관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에서 의자 등으로 옮겨 앉다’를 ‘트랜스퍼’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트랜스퍼가 가능한 휠체어 사용자는 고정된 좌석에 앉아 관람하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휠체어를 잠시 공연장 한 켠에 보관하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가져다주면 됩니다. 휠체어를 조작하는 방법은 관객에게 물어보세요. 잠금장치가 걸려있거나,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전동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야만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가 가능한 객석을 미리 표시해서 예매 단계부터 홈페이지 등에 알리거나, 이러한 객석의 위치를 하우스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트랜스퍼가 가능한 객석은 통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위치의 좌석들입니다. 서울의 한 공연장은 과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법령상 정해진 관람석 이외에, 접근이 편리한(즉 트랜스퍼를 통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을 객석 배치도에 따로 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트랜스퍼가 어렵거나 더 불편한 관객을 위해서는 휠체어의 다양한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이 마련된 빈 공간을 객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빈 공간’을 다른 객석과 멀리 떨어진 곳, 무대에서 시야가 일부 차단된 곳,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없는 곳에 마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공연장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편리하고, 음성해설 등이 이뤄지는지와 상관없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리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합니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소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저시력자의 경우 보이는 거리나 범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리를 배치할 때 그 부분을 가능하면 직접 물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앉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어느 위치에서 제공되는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자가 나오는 스크린 또는 수어통역사의 모습과 무대를 최대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찾으세요. 문자통역 등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공연의 경우, 공연자들의 대사 등이 잘 들리고 입 모양이 잘 보이는 위치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우선 좌석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관객 중 일부를 위해 객석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로 쪽 좌석을 원하는지, 스피커에 너무 가까워서 지나치게 큰 소리에 노출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객석을 배정해야 합니다.

배정된 객석의 위치에 따라 주변 관객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급상황 발생, 안내견이 함께할 경우 알리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두가 함께 관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접근 가능한 화장실**

독립된 또는 화장실 내부의 한 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여 대변기에 옮겨 앉을 수 있는 넓이가 확보된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 또는 BF인증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를 잘 준수한 화장실이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공연장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의 ‘장애인 화장실’을 안내하세요. 지하철역이나 공공도서관 등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세요. 종종 물품을 비치하는 창고로 이용하거나, 내부 시설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너무 먼 경우, 공연장에 존재하는 화장실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관객에게 알리세요. 예를 들어 ‘화장실 입구에는 턱이 하나 있다’거나, ‘턱은 없지만 화장실 출입문이나 대변기가 있는 공간이 비좁다’(넓이를 대략이라도 수치로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는 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기만 해도, 평소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던 관객이 공연장을 방문할 때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동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보행을 보조하는 다른 기기(워커 또는 지팡이 등)를 사용하거나, 공연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추가로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예매하지 않거나 예매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것도 접근성을 준비해 가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분명 기존과 다른 개선책들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사항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경우 외부에서 잠금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 등이 있나요?)

세면대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누군가에게 너무 높지는 않나요?

세면대 앞에 부착된 거울 아래에 손 씻는 방법이나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홍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1.7미터 정도의 키라면, 쪼그린 자세로 거울을 봐 보세요. 스티커는 정확히 여러분의 얼굴을 덮을지도



모릅니다.)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비치한 휴지통은 발로 밟아 뚜껑을 열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작동하나요?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안에 있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사람에게 상황을 알릴 장치(조명 등)나 다른 방법이 준비되어 있나요?

## 다. 사후단계 : 공연에 대한 경험 나누기와 재방문

### 관람객의 피드백과 공연에 대한 감상 공유

공연시설에 방문한 장애인 관객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공연기획자, 하우스매니저 등 공연시설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도 장애인 사회와 소통해 본 경험이 적어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두렵고 어려운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관람객의 소감을 듣고 지속적인 방문이 이어지도록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을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관객의 경험이 공유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연예술 문화에 다가가기 어려우므로 속한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장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 평소 접근성 지원이 필요한 관객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회원 등의 형식으로 관객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공연시설 또는 공연단체는 공연을 준비할 때 이 사항들을 미리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에 맞는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관객에게 개별적인 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은 홈페이지에서 접근성 운영(Access scheme)에 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관객들은 국립 극장이 진행하는 다양한 ‘접근성 공연’에 관한 정보를 받고, ‘접근성 공연’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연장이 제공할 수 있는 접근성 관련 지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영국 국립극장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 접근성 요청 사항 사례<sup>4</sup>

다음 중 필요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다면 표시해 주세요:

- 통로 좌석

\*‘통로 좌석’(Aisle seat)은 말 그대로 객석 통로에 바로 인접한 좌석입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 일부에게는 트랜스퍼 가능한 ‘접근 가능’ 좌석이며,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을 이유로 공연 도중에 시급히 자리를 떠나 하는 경우(방광염 등 배뇨 질환, 공황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조견 지원
- 음성해설 공연
- 소리 증폭 헤드셋
- 영국 수어(BSL) 통역 공연
- 자막 공연
- 편안한(Chilled) 공연

\*편안한(Chilled) 공연은 릴렉스드 퍼포먼스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중간중간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너무 엄격하게 관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공연입니다. 어린이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공연형식입니다.

- 인지장애(알츠하이머 등) 친화적 공연
- 무대와 가까운 좌석
- 감각수용적(Sensory-adapted) 공연

\*감각수용적(Sensory-adapted) 공연은 특정한 감각에 예민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공연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연에서는 빛이나 소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쓰지 않고, 부드럽고 덜 자극적인 방식의 연출이나 무대 디자인을 위해 노력합니다.

- 스마트 자막 표시 안경

\* 자막을 표시하는 안경 형태의 개인용 장치를 말합니다.

- 계단 없는 좌석
- 터치 투어
- 휠체어 사용자 공간

4. 영국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ationaltheatre.org.uk/your-visit/access/>



## 라. 방문과 관람 단계 주요 인력

### 방문과 관람 단계의 인력과 접근성 관련 업무

방문과 관람 단계에 핵심적인 접근성 관련 업무는 하우스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인력들이 담당합니다. 고객지원 업무의 예약 담당부터 공연 당일의 안내를 책임지는 하우스 매니지먼트 관련 인력들의 접근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관객들을 파악하여 당일 방문객 중 접근성 관련 도움이 필요한 관람객이 있는지, 현재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지원 관련 업무영역에서도 예약 시 물리적 이동 접근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해당 공연장의 상황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사전 정보 교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습득된 정보는 각 상황에 맞추어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설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설관리 담당자들, 작품의 진행상황과 연동된 이슈라면 연출팀, 무대기술팀 등과의 상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6. 공연장에서의 접근성과 안전

### 가. 안전을 위한 고민과 실천

#### 공연장의 안전과 접근성이라는 가치

공연시설은 규모에 따라 의무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 안전법 등에 의해 규정된 안전시설이나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연장의 물리적 환경은 비상시 장애인 관객이나 공연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안전을 위한 안내 사항들은 장애인 관객이나 공연자에게는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공연장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가 장애인 관객이나 공연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충돌하는 일도 존재합니다. 안전과 접근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때로 막막하고 어렵지만, 이곳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공연시설의 안내 방송은 이렇게 해보세요

공연법 제11조의5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 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공연시설에서는 비상 시 피난안내를 방송을 통해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내 방송은 음성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의 내용을 문자나 수어(둘 다면 더 좋습니다)를 통해 함께 안내할 수 있다면 모든 관객의 비상시 대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피를 위한 화살표 등을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도록 손이 닿는 부분에 설치해두면 시청각장애인(중복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공연장 전체안내도 역시 촉각지도를 구비해 두어 시청각장애인(중복장애인)이 손으로 만져서 공연장의 전체 구조를 알게 하면 좋습니다.

재난 상황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비상 상황(의료적 긴급 상황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장에 ‘안내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관객을 위해 안내 방송 시 안내원의 위치를 ‘박수’로 알리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며 몇몇 공연장과 공연단체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으니 참고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난 안내 방송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안내원을 불러주세요. 안내원은 무대 오른쪽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안내원이 박수를 ‘짝짝’하고 쳐서 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식입니다.

사실 피난 안내 문구의 내용은 대개 형식적입니다. 법은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을 안내하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주위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이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실제로 재난 시에 지원이 필요한 관객을 전담하는 안내원을 지정한 후, 방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분들은 안내원이 도움을 드릴 것이니 다른 관객 여러분은 대피 과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정도의 문구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재난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행 약자, 이동상의 장애가 있는 관람객이 있다면 해당 공연별, 해당 공연 시설별로 반드시 재난 대비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수와 규모, 해당 공연의 특성, 공연시설의 대피 동선,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재난 대피 계획 시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특별히 더 고려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관객의 경우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긴급히 이동해야 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객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관객과 상호 대화를 통해 수립합니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개별 대피 계획인 PEEP(Personal Emergency Egress Plan)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보건복지 및 공공안전부는 PEEP의 원칙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2020 연극의 해 ‘장애인의 공연장 내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PEEP은 건물 특성이나 방문 목적, 이용 패턴 등에 따라 건물 방문 전 또는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건물의 안전관리책임자와 PEEP이 필요한 장애인이 함께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 장애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PEEP을 요청할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PEEP의 존재를 모르고, 누군가는 PEEP이 없어도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EEP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작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심장병이나 뇌전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가진 사람들도 PEEP을 작성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PEEP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개인이 어떤 선택지를 취할 수 있는지 대피 과정과 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조력자가 필요한 경우 누가 대피를 도울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을 모든 장애인 관객과 수립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공연시설은 안전에 너무나 취약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성이 보장된 공연시설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누워서 이용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객 A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관객 A는 피난통로와 바로 연결되는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1열에서 관람했습니다. 게다가 A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길고 큰 휠체어에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개인별 대피 계획은 이러한 사례에서는 아주 중요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서 A의 대피를 지원할 안내원을 지정하고, 그 사람과 A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원자는 우선 물어봐야 합니다.

“A는 누군가에게 업히거나 안길 수 있나요? 보통은 위험하거나 다소 수치스럽기에 사람들 앞에서 업히거나 안기지 않겠지만, 비상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응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위해 A가 누군가에게 안길 수도 있다면, “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는 답합니다. “다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양쪽 다리의 아랫부분을 팔로 받쳐서 안아야 합니다” 또는 A를 늘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물어봅니다. 활동지원사는 자신이 A를 안을 수 있으므로, 비상 상황에서 안내원은 탈출구까지 길을 안내해 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의 휠체어는 그냥 객석에 두고 나가도 되는 걸까요? 만약 응급한 상황이라면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면 가지러 오면 됩니다. 그러나

A의 경우에는, 휠체어 위에 A가 사용하는 휴대용 호흡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휠체어 없이 안아서 밖으로 나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외투 같은 것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눕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과 A, 그리고 그의 활동지원사는 이런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사례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입니다.) 현실이 어떤 경우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을 상상하며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만 확인해 두어도, 만약의 상황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개인별 재난 대피 계획은, 그 공연시설에서 공연하는 장애인 공연자 또는 장애인 공연예술 작업자(무대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가 있다면 반드시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연시설에서 상시적으로 머물기에 재난 상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접근성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근성은 때로 안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규정한 법령은 응급 상황 시 피난로로 직접 연결되는 곳에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을 설치하라고 규정합니다. 이상적이지만, 그렇다면 장애인 관객이 휠체어에서 1열 가운데에 있는 고정식 객석으로 옮겨 앉는(트랜스퍼)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할까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내원 등이 장애인 관객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의 휠체어를 보관한 장소를 알고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해당 자리를 지정해주는 것은 안전보다 접근성이 더욱 우선시되어 사고 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검토한 A의 사례 역시 접근성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에 대한 개인별 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A의 좌석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조해서 밖으로 안내할지를 숙지했고,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A의 자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빠르게 대피 가능한 동선과 연결되는 위치라면 A의 접근성을 충족시키면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근성과 안전이 충돌할 때는 안전을 우선으로 한 적절한 대안을 통해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연 시설별 비상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대피 계획이 있지만, 각 상황별 보조가 필요한 관객을 위해 접근성이 고려된 구체적인 안전 대피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 약자를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처럼 포괄적인 범위의 계획을 넘어 공연 시설별 상황에 맞게 어떤 관객을 어떻게 보조하여 대피시킬지, 대피 보조기구 등을 구비했다면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 상세한 계획과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과 접근성이 충돌할 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접근성 가이드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접근성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나. 안전을 위한 담당 인력과 접근성

### 공연장의 안전 영역에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인력들

안전의 중요성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하우스매니지먼트와 관련한 인력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관객들을 마주해야 하고, 비상 대피를 실행에 옮겨야 할 인력들입니다. 위에서 설명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적합한, 해결 가능한 대안들을 고민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안전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의 구조와 대피를 위해서는 공연시설을 처음 만들 때 관계하게 되는 공연장 건립 주체(공공기관, 극장주)와 설계자(건축가), 분야별 컨설턴트들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기준은 당연히 충족시켜야 하며, 각 공연장이 주로 다루게 될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접근성적 요소들이 공연장 시설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시설 담당의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설의 접근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과 보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7. 접근성 공연의 사례들

### 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 사례

공연(시설)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의 양상은 무척 다양합니다. 상당 부분은 예술 창작의 영역에 해당하기에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를 읽어나가기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수어통역

공연시설에서 수어통역이란 통상 공연 홍보물이나 공연장 매표소(티켓박스), 공연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안내 과정 등에서 수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수어통역은 공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공중이용시설 일반에서도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일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연 접근성’에 관련해 이야기되는 수어통역은 그 의미가 더 넓고 다층적입니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대사를 수어로 통역하여 농인 관객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인 배우나 무용수 등이 연습 과정에서 제작팀과 의사소통하는 과정 전반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도 공연 접근성을 위한 실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아예 수어통역사가 출연자 중 1인으로 작품의 기획이나 연습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연 전반을 한국어와 수어의 두 언어로 구성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림 18] 국립극장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수어통역 출연자



## 문자통역(속기)과 자막해설

문자통역(속기)이란 국어 등 음성 중심의 언어를 문자(한글 등)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 접근성과 관련하여 문자통역은 수어통역과 마찬가지로, 홍보 및 안내 등에서 의사소통 접근성을 지원하는 실천일 뿐 아니라, 공연 중 배우들의 대사 등 음성으로 제공되는 공연적 요소들을 문자로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막해설이란 문자통역과 비슷하지만 음성 언어를 비롯해 청각정보 전반을 문자로 번역하여 시각기호로 전달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사를 글자화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자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막해설에서 중요한 것은 대사뿐 아니라 중요한 음향효과, 무대 상황, 반응(비언어적 정보) 등을 함께 설명하여 청각적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무대 위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의미 전달과 생동감 있는 표현 등이 요구됩니다.

문자통역(속기)과 자막해설은 수어를 알지 못하고 음성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난청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접근성 지원의 중요한 예입니다.

문자통역(속기)과 자막해설은 별도의 수신기를 이용해 원하는 관객에게만 전달하는 ‘폐쇄형’ 방식과 관객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행해지는 ‘개방형(통합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통역 역시 2020년대 공연계에서는 단지 배우의 대사를 그대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음악이나 작품에서 들리는 다양한 사운드를 여러 기호를 통해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림 19] <댄스네이션> 공연의 자막해설



## 음성해설과 터치투어(촉각투어)

음성해설이란 공연 등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대상이나 상황의 주요 요소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한, 공연 접근성을 위한 실천 방식입니다. 공연에서 음성해설은 배우나 무대의 상황, 동선 등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나 배우들이 직접 작품 전반의 시각적 상황을 대사나 지시문의 형태로 관객에게 상세히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음성해설은 별도의 수신기를 이용해 원하는 관객에게만 전달하는 ‘폐쇄형’ 방식과 관객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행해지는 ‘개방형(통합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터치투어(촉각투어)란 배우 또는 무용수의 의상이나 소품을 만져보거나, 무대 디자인, 연주자들의 위치 등을 직접 무대 위에서 이동하며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촉각을 통해 공연 전반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돕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보통 시각장애인 등 원하는 관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장 입구에 소품이나 무대 모형 등을 만져볼 수 있게 전시하거나, 공연 전 관객과 함께 공연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직접 무대 환경과 조건을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무대에서 진행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무대 모형을 세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해설과 터치투어가 결합해 시각장애인 등의 관객이 공연에 접근하는 정도와 방법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터치투어 사례

2023년 공연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두산아트센터 제작, 연출 정진새, 접근성매니저 이청)의 무대모형  
터치투어 현장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제작팀은 무대의 모형을 제작하여 전 회차 무대모형 터치 투어를 진행, 관람 전 공연의 무대 모형을 직접 만지며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감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림 20]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무대 모형 터치투어 현장



©접근성매니저 이청 제공



##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공연시설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는 관람석을 말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시설은 법률적으로 그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2020년대 공연계에서는 공연 접근성 여부를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공연장이나 공연의 특성,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청각장애인(농인 및 난청인)의 경우 수어통역사 또는 문자통역 스크린의 위치에 따라 특정한 위치의 객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보조견을 동반하는지 여부, 음성해설을 듣는 방식 등에 따라 관람석의 위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동지원

이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연시설의 접근성 지원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점자블록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 물리적인 시설을 잘 완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것도 모두에게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성은 결국 공연을 만들고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지원은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의 이동부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탈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이 신속한 대처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계단용 이송 장비와 같은 피난 보조기구를 구비하여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피난 보조기구로 비상시에 해당 기구에 관람객을 앉혀 고정하고 양쪽에서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공연장 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보조도구도 보유하고 있는데 계단을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형태의 보조도구입니다.

[그림 2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계단 이송용 보조도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지하 비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계단 이송용 보조도구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3층 비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릴렉스드 퍼포먼스(열린 객석)**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주로 편안한 공연, 느긋하고 엄격하지 않은 규칙으로 관람이 가능한 공연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공연에서 객석은 보통의 공연보다 어둡지 않고, 공연 중간 밖으로 나가거나 이동하는데 제약이 적으며, 무대 연출은 너무 큰 음향이나 자극적인 조명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부담이 덜 가는 의자를 객석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 공연은 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인해 특정한 자극에 민감한 일부 발달장애인,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어른, 중간중간 의료적 이유로 휴식이 필요한 다양한 몸을 가진 관객이 공연에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 **이미 설계된 공연시설의 물리적인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연장 등 공연시설 전반의 물리적인 환경을 어느 정도 고정된 것으로 두고, 그 한계 위에서 접근성을 높이려 애쓰는 사람들을 주요 독자로 전제합니다. 다만 공연시설의 일부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얼마든지 개조하거나 보수할 수 있고, 당장 물리적인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인적인 서비스나 운영방식을 통해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BF인증)’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설치방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위 법령과 BF인증 기준 가운데 일부를 예시로 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법령을 잘 준수하고, 또는 BF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물리적 조건을 만들더라도, 막상 공연 현장에서는 언제나 접근성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연장이 휠체어 관람석을 법률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설치했는데, 어느 날 공연장을 찾고자 하는 관객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 누워서 공연을 관람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휠체어 관람석은 그 관객에게 제대로 된 관람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여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지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내용과 사례들은 일반적인 답이 될 수는 없으나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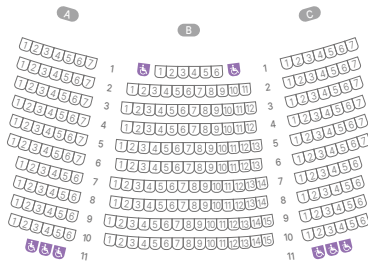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지속적인 개선 사례

[그림 2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접근성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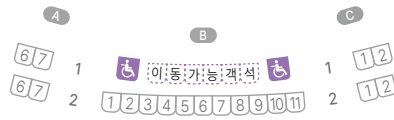
### 휠체어석 범위

- ▶ 2024년 3월부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휠체어 객석이 추가됩니다.
- ▶ 고정된 휠체어석은 2석이 추가되어 총 8석입니다.
- ▶ 이동식 객석 6석을 이동하면, 최대 3석까지 휠체어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대극장 총 객석은 485석에서 458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객석은 1~2열의 단차가 없었으나, 이번 개선 공사로 1열은 철거되었습니다.

대극장 1층, 고정 휠체어석 8석



B구역 1열은 추가된 고정 휠체어 2석과 이동이 가능한 객석 6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B구역 1열은 6석의 이동식 객석을 분리하여 옮긴 후 휠체어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입니다. 1981년에 아르코예술극장을, 2009년 대학로예술극장을 개관했습니다. 최근 지어진 건물에 비해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공연과 공연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아르코예술극장에서는 장애 예술 단체의 공연을 위해 백스테이지 내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고, 대극장 28석, 소극장 18석을 임시 철거하여 기존 휠체어석을 포함 대극장은 6석에서 22석으로, 소극장은 1석에서 7석으로 휠체어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장 접근성 개선 공사, 비상시 안전에 대한 대응 훈련, 내부 직원 인식 개선 워크숍 등 2022년까지 총 14건의 물리적인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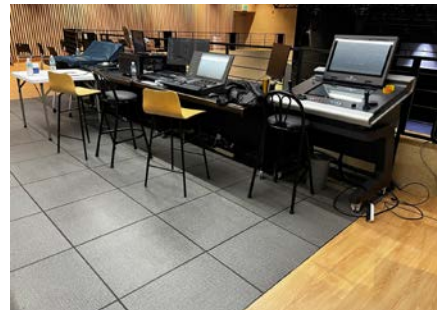
2023년 초,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접근성 개선 일환으로 자막해설을 위한 장비 구비와 휠체어 객석 추가 확보 및 관람 위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23년 정기대관이 확정되어 공연 일정이 계속되고 있었고, 최대 29석이 감소 되어야 하기에 2024년 3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개선에 나섰습니다. 계단식 객석임을 고려하여 중앙 구역 1열에 휠체어석을

추가하면서 휠체어 관객 출입문 확장과 이동 동선의 경사로 공사, 다목적 화장실 추가 공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자막해설 모니터 설치를 위해 무대 전면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부 시야 방해석을 철거하고 콘솔 구역의 확장 공사 등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을 활용한 공연이나 접근성 공연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 모두예술극장의 조정실

[그림 24] '모두예술극장' 객석 2층 조정시설 전경



©메타기획컨설팅

모두예술극장의 객석 2층에 위치한 오퍼레이터 공간은 개방적이고 넓적하며 전체가 무단차로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공연자, 기술 스태프 등 제작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명, 음향의 라이브 시스템과 함께 음성해설 및 자막해설 등의 제어를 맡은 접근성 오퍼레이터를 위한 공간이 무대를 전망할 수 있는 위치에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 나. 창작의 일부로서의 접근성

### 창조적인 실천으로서의 공연 접근성

앞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공연 기획 및 제작, 홍보와 마케팅, 공연예매와 공연 안내, 관람 지원의 과정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접근성 지원 방안들을 떠올리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은 단지 공연제작이나 공연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적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차원은 공연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적, 방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접근성 자체가 공연의 창작 방향, 형식, 방법을 촉발하고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공연 및 장애에 대한 연구자들 중 일부는 ‘미(학)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접근성이라는 미학’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연계에서는 일부 공연장 및 극단을 중심으로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왔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공연 전반까지 통합적으로 접근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접근성 공연’ 또는 ‘배리어프리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 공연’이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공연창작 전반에서 접근성을 의식하는 창작자들의 다양한 노력은 더 존재합니다.

이하에서는 창작과정 전반에서 장애인 관객 또는 장애인 공연자의 참여를 고려하고, 그 공연의 형식과 내용에 접근성에 관한 고려를 통합시킨 국내 사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실현했기에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런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래 사례는 접근성과 공연 제작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보여주는 데 적절한 최근의 작업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한편 각각의 공연들은 수어통역과 음성해설을 모두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접근성 관련 실천을 했지만,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요소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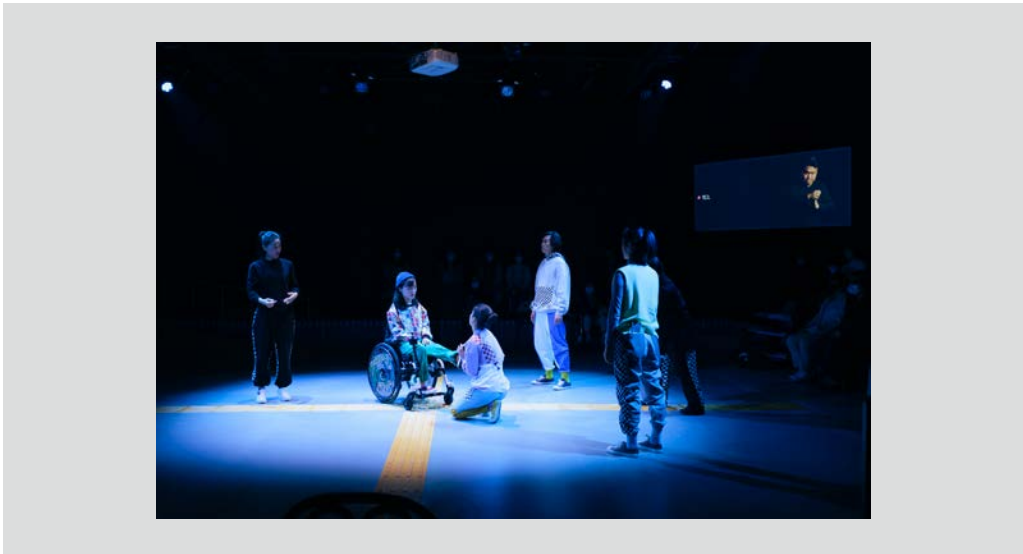
### 수어통역사라는 공연자

2022년 6월 국립극단이 제작한 연극 <소극장판-타지>(연출 강보름)는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장애가 있는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무대에는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배우들과 함께 움직이며 대사를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수어통역은 무대 위뿐 아니라 미리 촬영해 둔 스크린에서도 제공되었는데, 객석의 위치에 따라 수어통역사가 배우에게 가려지기 쉬운 위치에서는 스크린이 잘 보이도록 하여 수어통역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공연에서 수어통역사 들은 단지 통역만을 하지 않고, 배우가 바닥에 누우면 함께 눕고, (단 통역을 할 때는 배우와 다르게 움직이며



통역을 하고) 배우가 이동하며 같이 또는 따로 이동하며 무대 위 동선을 다채롭게 활용했습니다.

[그림 25] 국립극단 <소극장판-타지>(2022) 공연 장면



연출 강보름, 접근성매니저 김현지  
©국립극단

## 춤 ‘듣는’ 여러 방법들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접근성 제작공연인 ‘시나브로 가슴에’의 무용 공연 <구조의 구조>(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기획, 안무 이재영, 접근성매니저 권지현)는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해 ‘우퍼 조끼’를 활용했습니다. 우퍼 조끼는 주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음악 공연을 즐길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조끼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오디오 소스의 볼륨이나 음절의 길이, 음역의 높낮이 등이 진동으로 치환되어 신체에 파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sup>5</sup>

이 작업은 이미 그 형식이 완성된 작품 <구조의 구조>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확장하는 기획이었습니다. 이에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작품의 안무가와 어떤 방식의 접근성 공연이 좋을지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통 시각장애인 관객을 위해 제공하는 ‘음성해설’은 작품의 구조상 효과적인 접근성 지원방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청각장애인이 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우퍼 조끼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연팀은 기존 공연에 삽입되어 있던 음향이나 음악을

5. 시나브로 가슴에×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구조의 구조 배리어프리 제작과정 기록』(2023, 기록작가 박다솔), 7쪽. 이하 본 작업에 대한 서술은 같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대로 우퍼 조끼의 진동으로 전달하는 것은 무용 공연을 이루는 다른 풍부한 사운드(무용수들의 숨소리, 발을 구르는 소리, 몸을 부딪치는 소리 등)를 생략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이것이 <구조의 구조>라는 창작물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공연팀의 음악감독과 예술극장의 음향감독은 우퍼 조끼를 통해 전달할 오디오 소스와 그 재생 큐(cue)를 별도로 제작합니다. 기존의 음향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운드를 우퍼 조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퍼 조끼는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진동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좌석에 비치된 조끼를 통해 공연의 내용 중 청각적 요소를 진동으로 전환하여 관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림 26]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좌석 일부에 비치된 우퍼 조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공연 <구조의 구조> 배리어프리 기록 中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구조의 구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이용법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리에 저시력자인 모니터링 요원을 초대했다는 점이다. 해당 관객은 1-2m 정도의 근거리에 놓인 형체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저시력인이었는데, 권지현 접근성 매니저는 해당 관객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를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공연 연습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했다. 무용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구사하는지, 무용수들의 몸의 형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공연을 조금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접근성 매니저는 모니터링 자리에서 즉흥적인 음성해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모니터링 요원은 움직임이나 무대에 대한 해설이 작품 관극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객 모니터링단에 시각장애인을 포함시킨 것은, 단체로서도 배리어프리 제작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러한 순간을 통해, 현대 무용이 절대적으로 시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각을 배제한 관람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 믿어왔던 생각이 한순간에 깨어지기도 했다. 이재영 안무가 또한 “현대무용에서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동시에, 시각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무용을 어떻게 문화로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게 된다. 배리어프리와 같은 작업들은 장애인을 유별나게 배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게 마땅히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근래 일련의 작업을 통해 갖게 된 생각을 공유했다.<sup>6</sup>

- 시나브로 가슴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구조의 구조 배리어프리 제작과정 기록」(2023, 기록작가 박다솔)

6. 위의 글, 33-34쪽

## 누군가를 위한 접근성이 다른 사람을 위한 접근성과 ‘충돌’한다면?

공연에서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면, 다른 조건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통역을 제공하니까 청인(비청각장애인)들이 공연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 역시 접근성 지원과 관련하여 현실에서는 사소하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문자통역이 제공된다고 하여 청인들이 그 공연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공연이,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고려하고 공연의 연출 의도가 결함하여, 공연 전반에서 청각적인 요소가 극도로 중요하게 구성되는 경우라면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모두가 더 접근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겠지만, 그동안 공연예술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어떤 창작자들은 과감히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2022년 국립극장이 제작한 <커뮤니티 대소동>(연출 이진엽)은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우주’로 설정된 극장 안에서 촉각과 소리를 통해 관객을 안내하며 함께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극장의 빛을 차단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시각에 기대지 않고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을 통해 만나고, 공간을 탐험하고, 춤을 춥니다.

이 공연에서는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증폭하여 시각장애인의 온전한 ‘접근’은 물론, 주로 시각에 의지하는 공연에 관한 상식에 물음을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특히 예민한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들에게도 시각 외에 촉각 등 다른 감각들에 주목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접근성이 ‘충돌’한 사례로만 이해해야 할까요? 접근성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닌, 그동안 예외적으로 여겨진 개개인의 조건과 환경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실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은 ‘유니버설’한 무대를 구현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외적인’ 관람 조건 중 하나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공연의 중심에 놓는 창작물로서 접근성에 관한 여러 실천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 공연

서울시향이 개최하는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서울시향이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정기공연 도중 벌어진 한 사건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도중 자폐 아동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고, 부모는 공연 도중 아이를 데리고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서울시향은 ‘클래식 스페이스 함께!’라는 제목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향은 어린이 병원의 자문을 얻어 일렬식 좌석 대신 보호자와 눈을 맞추기 쉬운 원탁형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하는 등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공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서울시향은 ‘행복한 음악회, 함께’라는 제목으로 매년 접근성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객객뿐만 아니라 출연자로서도 서울맹학교 초등5학년 학생(피아노)을 섭외하는 등 지속적인 접근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사례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7]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 공연 사진 및 포스터



©서울시립교향악단

## 공연을 잠시 멈춰도 될까요?

2023. 12.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의 공연 <기다려>(연출 구자혜)는 공연 도중 멈추고 싶을 때 관객이 멈출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공연의 전제이자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접근성 지원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일종의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이지만, 꼭 그러한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공연은 아래 소개글이 표현하듯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존재들을 기다리는” 공연이 되고자 합니다.

‘접근성’은 이 공연에서 부수적인 장치나 서비스가 아니라 공연이라는 행위와 공연장이라는 공간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 ※ 공연 <기다려>

너는 밤 8시와 9시 사이에 약을 먹어야 하지만, 공연 시간 중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정한다. 기침을 하느라 밤을 샜지만 리허설에 기여이와 기침할까 뒤돌아 침을 삼키고 있는 중이다. 공연 중, 쪼그려 앉는 장면이 있다. 장에 자극이 와서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이 자극되지 않는 쪼그려 앉는 근육을 고안해 낸다. 또 누군가, 아,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나 가지 않는다. 누군가가 사라졌지만 며칠의 쉼을 가진 후 혹은 그 쉼조차 갖지 못한 채 공연은 올라갔다고 한다.

시린 눈으로 관객의 박수를 받는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성취감의 순간일까 아니면 이렇게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지만 그 자각을 애써 지연시키려 하는 순간일까. 해내야만 했던 순간들 속 촘촘히 균열을 발생시키는 협응의 순간들, 멈춤의 순간들,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못해 기다려주는 너희들을 기다리는 순간들에 대하여. 이 공연은 올해 2023년 2월 기다리며 멈췄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공연이며, 미래에도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존재들을 기다리는 공연이 되려 한다.

여기는 당연히 극장, <기다려> 공연소개 글 中





## 8. 피드백

### 가. 왜 피드백을 받아야 하나요?

탄성과 눈물, 박수. 그리고 때때로는 야유까지 관객의 피드백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의 성장 및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관객들의 각각의 의견은 중요하며, 특히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다음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질적 진단과 향상

무엇보다 먼저 공연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 연출, 프로듀서 등은 어떤 부분은 잘 되었거나 그러지 못했고, 또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작품과 공연 자체의 질과 전체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2. 접근성과 포용성 진단과 향상

장소부터 공연까지 얼마나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지를 알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론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3. 관객 만족

관객의 선호도와 기대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아티스트와 연출, 프로듀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공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좋아하는 작품과 변화 및 발전하는 작품에 대한 N차 관람은 애호인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관객이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다시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4. 사회적 책임과 교육적 가치 진단과 향상**

예술가와 문화예술 기관에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접근성 등 서로 다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관점을 통한 예술 감상과 몰입 경험에 대한 청취(의견 수렴)는 공연 기획자와 예술가들에게도 새롭거나 확장된 예술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작품은 물론 공연장 등의 공간이 더 다양한 예술적/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합니다.

#### **5. 공동체의 지지와 참여 진단과 향상**

젠더,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담았다는 작품이 실제로 이들과 거리가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장애를 포함한 다양성 공동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여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배우나 작품, 또 공간 등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 자주 방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 나.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할까요?

보다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경험을 만들어가도록, 의미 있는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 1. 다양성 반영

피드백 프로세스에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포함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락할 수 있는 장애인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참고 자료에 수록된 곳을 포함한 장애인 및 관련 단체에 접촉하여 적절한 당사자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2. 접근 가능한 피드백 디자인

쉬운 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언어로 질문(지)을 만듭니다.

의견 수렴 방식: 온라인 양식, 종이 설문지에서 대체 형식(예: 큰 활자, 점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 사서함 방식을 이용한 구두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방법론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피드백의 마음은 크지만 설문이나 인터뷰에 응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활동 보조인의 일정 등에 장애를 가진 관객이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연 안내문에 피드백을 위한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 전화번호 등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것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서, 바로 앞에서 짧은 시간에는 하기 힘든 솔직하고 자세한 피드백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피드백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제출 후 간단한 포인트나 상품권을 휴대폰 등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 3. 구체적 질문

접근성 경험: 접근성(예: 관람 구역과 좌석, 안내, 수어해설, 자막, 무대 모형 설치, 촉각 전시물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애(어려움, 불편함) 요소: 공연 관람(여정) 중 장애물(어려움, 불편함; 예: 불분명한 표지판, 부족하거나 불균등한 통역과 해설 등)이 있었는지 질의합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 관람객들에게 접근성 및 예술 경험 향상 방법(예: 추가적인 감각적 경험, 더 자세한 통역과 해설 등)을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 4. 공연 콘텐츠 평가

콘텐츠의 질: 공연의 내용, 타당성 및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진솔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표현의 대표성과 대상화: 작품과 배우(아티스트)의 다양성, 포용성 및 정체성의 관점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접근성: 워크숍, 배우/연출과의 대화, 백스테이지 투어 등 이벤트의 접근/포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 경험: 관람 등의 경험이 진짜 좋았고(재밌고, 흥미롭고) 감정이입, 몰입감 등을 느꼈는지 확인해 봅니다.

### 5. 디자인, 기술, 환경

시청각 자료: 시청각 요소 및 대체 자료들(예: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요소들(예: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앱, 진동장치 등)의 실제 사용성과 유용성을 확인합니다

경로: 공연 여정 내 이동의 용이성(예: 휠체어 사용 등을 위해서는 다른 경로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는 않는지, 점자 보도블록이나 안내 등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고르게 되어있는지,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한 안내와 그곳으로부터의 경로는 괜찮았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설: 좌석의 편안함과 접근성(예: 등받이와 팔걸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는지,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앉는데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등), 난간, 손잡이의 위치와 적절성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조명: 입장과 퇴장을 비롯해 공간 내 조명이 적합했는지(예: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았는지, 공연 중 자극이 되지는 않았는지 등) 확인합니다.

안전: 화재 등 비상 상황 대응 및 대피 절차에 대한 인지 및 개선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6. 추가 설명과 소수 의견**

방문자와 관람객들이 작품, 공연, 공간 및 접근성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다른 경험과 감각의 소유자들이 가진 관점과 통찰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한 피드백은 설문지나 인터뷰의 답 이외에도 많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가 하는 질문, 관객/참가자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신체언어, 행동, 회피 반응, 이해와 관련된 끄덕임, 눈빛과 얼굴 표정, 관람 동기와 적극적 호응 등도 모두 참가자로부터의 피드백입니다.

## ※ 공연 작품의 접근성 피드백 설문지 구성 예시

### • 공연 정보:

공연 이름:

날짜:

장소:

### • 관객 정보:

(특별한 연구와 통계처리를 위한 이유 이외에, 단순한 접근성에 관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장애 등에 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까지 굳이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이름 / 연령 (선택적 기입과 수집):

2. 장애 유형 (중복장애의 경우 모두 선택):

☐ 지체장애 (예: 휠체어 사용, 뇌병변 장애인 등)

☐ 시각장애 (예: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인 등)

☐ 청각장애 (예: 농인, 청각장애인, 중증 청각손실, 인공와우 사용 등)

☐ 발달 또는 정신장애 (예: 인지/지적 장애, 자폐스펙트럼 등)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_\_\_\_\_ (예: 내부 장기 장애 등)

### • 접근성 및 포용성:

1. 공연의 전체적인 접근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잘 모르겠음

2. 특별히 접근성에 관해 눈에 띈 것이 있었나요? (예: 좌석, 수어해설, 안내 등)

☐ 예 (구체적으로 기재): \_\_\_\_\_

☐ 아니오

3. 공연 관련 접근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경험했나요?

☐ 예 (구체적으로 설명): \_\_\_\_\_

☐ 아니오

4. 더 나은 공연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떤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 공연 경험:

1. 공연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잘 모르겠음

2. 작품과 배우 등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장애정체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셨나요?

-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3. 공연은 즐거움이나 예술적 경험이 되었나요?

-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 (아동, 발달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연 접근성 피드백 인터뷰의 질문 예시

공연(예: 대사, 수어통역, 자막, 음성해설, 리플렛 등)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작품이나 프로그램 중 좋았던(흥미가 가고 재미있었던) 것이 있을까요?

(도슨트 프로그램, 교육 내용, 자료, 구성, 시간)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왜 좋았나요?

생각나는 것이나 사람이 있었나요?

작품이나 프로그램 중 재미없거나 지루했던 것이 있을까요? (관객과의

대화, 워크숍, 백스테이지 투어, 자료, 구성, 시간 등)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강사(연출, 배우, 선생님 등)의 수업(방식, 내용)에서 바꿨으면(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좀 더 흥미가 가거나 예술적(재밌거나, 와-하거나, 멋지다, 뭉클했다 등)이라고 느낀 것(장면, 부분, 대사, 연기, 노래 등)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작품 중 맘에 들거나, 혹시 '아, 나 같다. 나 닮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하고 느껴진 것이 있었나요?

혹시 (공연 관람/프로그램 참여 중)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이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이것이 있어서 좋았다 싶은 것이 있을까요? (안내판, 쉬운 말, 수어통역, 자막기, 음성해설기, 인형, 우퍼 조끼, 압박 조끼 등)

혹시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요?  
 연출, 배우, 강사(선생님)에 뭐라고 내 마음을 전하거나 조언할 수 있을까요?

더 보고 싶고, 배우거나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같이 하고 싶거나, 알려주거나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 9. 참고 자료

### 공연시설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뉴질랜드 Arts Access Aotearoa, Arts for All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재구성)

Ⅰ [표 3] 공연시설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Arts for All 자료 재구성) Ⅱ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이동과 접근 (외부에서 공연장)	대중교통을 이용한 공연장 방문이 가능한가?	
	공연장부터 대중교통 역/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주 출입구 밖에서 주정차를 통해 승하차가 가능한가?	
	공연장 내외부에 조명이 잘 갖춰져 있으며 안전하고 지붕이 덮여 있는 대기공간이 있는가?	
	공연장까지의 접근로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며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가?	
	공연장에 주차장이 있는가?	
	지정된 접근성 높은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가? 있다면 몇 개인가?	
	주차구역의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공연장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주차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이며 그 연결은?	
입구역역 접근성	접근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택시 등 안내 가능한 개별 이동수단에 대한 연락망이 있는가?	
	건물에 계단이 있을 경우, 주요 입구로의 진입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건물 진입이 안전한가?	
내부의 일반 접근성	입출구와 통행/진입로를 표시한 지도가 있는가?	
	공연장의 주요 출입구 영역의 실내장식에 위험요소가 없는가?(매트, 선반 등등)	
	주요 공연장 내부 동선에 화분, 진열대, 가구 등 경로를 차단하는 위험이 없는가?	
	위험요소들은 명확히 표시되었는가? (유리문 포함)	
	접근 가능한 경로의 복도, 통로가 최소 1.2m의 폭을 확보했는가?	
	공연장의 모든 공공공간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가?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공간에 촉각 지표를 적용한 안내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지팡이로 느낄 수 있는 표면의 변화, 계단 가장자리 표시, 리프트 점자버튼 등)		
	조명이 없을 시 공연장 내외부 경로 표시용 발광 표시기/간접조명이 있는가?		
	공연장에 높은 색상대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계단, 문틀 및 표지판을 나타내는 가시성 높은 대조색상을 사용 하고 있는가?)		
	소음에 취약하고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연 및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소음 수준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연장 내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구비되어 있는가?		
	통로 및 경사로에 사람들이 동반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최소 1.2m의 충분한 공간)		
계단	경사로에는 이동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한 난간이 있는가?		
	계단에는 연속된 난간과 함께 양 끝에 튀어나온 버튼/사인이 있는가?		
	계단을 표준 높이(계단 사이 최대 18cm)로 설정하고 있는가?		
	계단의 가장자리가 둥글고 색상대조가 명확한가?		
리프트 및 엘리 베이터	계단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버튼이 0.9~1.35m 사이의 적절한 높이, 문이 최소 0.9m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		
	휠체어를 포함해 다수의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최소 1.4*1.4m의 내부 공간)		
	내부에 안전을 위한 난간, 손잡이가 있는가?		
	점자와 함께 통화 버튼을 위한 촉각 구분이 되어 있는가?		
	오디오 안내 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발광 화살표 또는 LCD 디스플레이와 같이 바닥을 보여주기 위한 조명 표시가 있는가?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뚜렷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출입문과 출입구	공연장 내에 자동문이 제공되고 있는가?		
	자동문의 설비가 최소 5초 이상 열림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가?		
	한 손으로 문을 열 수 있는가?		
	모든 문의 손잡이들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레버형으로 되어 있는가?		
	모든 문의 손잡이가 바닥에서 1m의 최적의 높이에 있는가?		
	열렸을 때 문의 출입 너비가 최소 0.76m이며 방해물 없는 접근 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유리문에 위험 표시 및/또는 유리 패널이 있는가?		
바닥 표면	모든 바닥 표면이 균일하며 안정성 있는가?		
	모든 경사로, 계단 및 타일 표면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가?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바닥 표면인가? 위험 요소가 없고 카펫이 짧은가?		
조명 (무대조명 외)	공연장의 조명이 균일하며 조명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도록 설비되어 있는가?		
	수어나 입술읽기 등의 소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조명이 적절히 제공되는 장소가 있는가?		
	위험요소들이 잘 밝혀져 있는가?		
	광택이 있는 표면과 눈부심이 최소화되어 있는가?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조명의 변화나 특별효과가 사전에 공지되도록 하고 있는가?		
화장실	접근성 높은 화장실을 모든 성별이 이용하도록 갖추고 있는가?		
	화장실의 위치와 식별이 명확히 되도록 되어 있는가?		
	문의 손잡이가 바깥쪽으로 열리는 레버형으로 되어 있는가?		
	휠체어 사용자가 360도 돌 수 있으며 동반인과 함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최소 1.9*1.6m의 내부공간)		
	모든 조절을 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L자형 손잡이 레일/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세면기, 버튼, 거울, 핸드드라이어 등 모든 편의시설이 접근 가능한 높이에 있는가?		
청각보강 시스템 (청각루프 및 적외선 관련 시스템)	공연장에서 청각보강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며 적절한 시스템인가?		
	해당 시스템/설비의 장소와 사용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사인이 제시되어 있는가?		
	공연장/객석 내 어느 장소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가?		
	필요시 사람들이 예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시스템/설비가 정기적으로 확인, 정비되도록 되어 있는가?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표지 / 사인물	사인물들이 모두 명확하며 읽기 쉬운가?		
	표지와 라벨이 1.2m~1.675m 사이의 크기인가?		
	공연장 통로를 알려주는 표지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표지의 색상이 읽기 쉽고 대조적인가?		
	글꼴과 글자 크기가 읽기 쉽게 설정되어 있는가? (고딕/돋움 계열, 최소 22pt)		
	공연장에 점자 표지/사인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침, 낮, 오후 등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모두 적절히 노출되는 표지/사인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사인물별 조명, 눈부심 방지 등)		
	공연장에서 현란한 조명, 연기, 또는 폭발음이 사용될 경우 이를 고지하는 적절한 표지와 사인물이 배치되어 있는가?		
식음료 관련	식음료 영역에 계산대, 바(Bar)등이 높이가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인가?		
	만약 어렵다면 휠체어 사용자나 바/카페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음식과 음료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보조 설비와 대안이 있는가?		
	약물 복용을 위해서라면 개인 음식/음료를 공연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는가?		
객석영업 및 관객 서비스	공연장내 공공장소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휴식공간의 좌석에 팔걸이가 있는가?		
	좌석에서부터 일어나기 쉬운가? (0.45~0.52m 높이, 또는 작은 사람 및 어린이를 위한 0.35m 높이)		
	휠체어 사용자의 공연장 및 객석 내부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적절한가?		
	휠체어 좌석 공간은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탈부착 가능한 팔걸이의 통로쪽 좌석을 제공하고 있는가?		
	보조견이 객석 주변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안내데스크, 매표소, 바 등 서비스 카운터들이 0.8m의 접근 가능한 높이인가?		
	가구 및 부속품이 날카로운 모서리, 플립형의 경우 동선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가?		
	좌석의 번호가 크고 명확히 표시되고 있고 좌석을 인지하기 쉬운 색깔로 되어 있는가?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휠체어 사용과 대여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충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공연장에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예약, 사용방법 등이 적절히 안내되고 있는가?		
안내견	안내견을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과 서비스(휴식공간, 화장실 등)가 마련되어 있는가?		
비상 대피로 / 대피절차	비상시 대피로와 출입구가 모두에게 접근하기 쉬도록 계획 되어 있는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 고객을 돕기 위한 경보 시스템과 직원 배치 시스템이 있는가?		
	응급 상황에서 시각적 경고와 음성 경고가 모두 제공되는가?		
홍보 및 커뮤니 케이션	공연장 정보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설비가 공연장 내부에 갖추어져 있는가? (인쇄물, 대형 글자/인쇄물, 오디오, 웹사이트 등)		
	정보가 공연별, 프로그램별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가? (프로그램, 시놉시스, 메뉴 등)		
	인쇄된 정보가 읽기 쉽게 되어있으며 큰 글꼴로 제공 가능한 옵션을 갖추고 있는가?		
	음성을 문자 정보로 전환시켜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 사용법을 적절히 안내하고 있는가? (teletypewriter, 전신타자기: 음성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내부직원 관련	직원들에게 장애인 대응 교육을 제공하는가?		
	직원들에게 장애인을 돕고 요구사항을 이해한 경험이 있는가?		
	직원들이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직원 중, 수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접근성 요구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가?		

## ※ 장애인 관객과의 대화 가이드 전문(런던극장연합)

## ACCESS LONDON THEATRE

## - Your Guide to Putting on an Assisted Performance

## 대면 의사소통 : 일반적인 정보

직접 상대방을 바라보며 대화하세요. 통역사나 도움을 주는 동료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건네세요.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바로잡은 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질문하고, 대화의 흐름에 맞춰 나가세요.

상대방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식인지 확인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직원들과도 소통하여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채세요.

크게 말하지 않되 명확히 전달하세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각 장애인들이 보거나 듣지 못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개인의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청각 보조기가 필요할 수 있고 누구는 수화통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 예시입니다)

일부 관객들은 처음 공연장을 방문하거나 학습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같은 공연장 용어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매표소' 대신 '티켓을 받으실 곳'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세요.

시각장애인에게 '저쪽에'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왼쪽으로 돌아 5걸음 가시면 매표소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말하세요.

'막이 오른다'는 말 대신 '공연이 00분 안에 시작합니다'라고 안내하세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시력이 좋지 않은 분', '청력이 좋지 않은 분'이라고 표현하세요.

## 어떻게 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흰 지팡이를 가졌거나(전맹/저시력), 빨간 줄무늬가 있는 흰 지팡이를 가졌다면(저시력과 청각장애가 있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전증이나 발달장애 같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장애를 가진 관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 농인, 난청인 관객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 청각장애인 - 이는 고도의 청력 손실을 의미하지만, 경미한 청력 손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 구화, 문자통역, 독화, 또는 이들을 혼용해 의사소통합니다. 대문자 D를 사용한 'Deaf'라는 용어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주로 수화를 선호하고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들을 장애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언어적 소수자로 여깁니다.
- 농인 - 이 용어는 건청인이었다가 성인이 되어 갑자기 고도 또는 전농이 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농인들은 대개 영어 구사력이 좋으며, 문자통역사, 독화사, 전자노트필기사 등을 활용해 의사소통합니다. 많은 농인들이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 난청인이나 전농인에게 청각 감각을 제공하는 전자기기입니다.
- 난청인 - 이 용어는 경도에서 중도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대개 청력이 점진적으로 손실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일부 난청인들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특정 상황에서 독화를 활용합니다. 또한 보청기 루프나 적외선 시스템 같은 음향증폭기기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항상 청각장애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밝은 창문 앞에 서 있지 마세요.

말을 걸기 전 청각장애인이 당신을 주시하는지 확인하세요.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발음과 입모양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말하는 리듬과 속도로 명확히 발음하세요.

상대가 단어나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해주세요.

청각장애인이 당신 말을 이해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고개를 가만히 두고, 돌아서면 말을 멈추세요.

손과 손에 든 물건을 얼굴 가까이에서 멀리하세요.

청각장애인이 당신 말을 따라오는지 확인하세요.

명확히 해야 할 때는 적어서 보여주세요.

### 전맹 혹은 저시력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 전맹인 - 정상 시력에 비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 고도의 시력 손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전맹인은 안경을 써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약간은 볼 수 있습니다. 전맹인은 테이프, CD, 이메일

문서 등 대체 형식으로 정보를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크린리더가 정보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PDF나 여러 열로 구성된 문서는 특정 스크린리더가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점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 저시력자- 안경으로 교정되지 않는 정도의 시력 손실 상태입니다. 저시력자는 전맹인 보다는 더 많이 보지만 정상 시력인 보다는 덜 봅니다. 시력 상태에 따라 큰 활자나 명료한 인쇄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목소리 방향을 통해 당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날 때와 떠날 때 자신을 소개하세요.

공연 중 식음료나 티켓 등을 건네줄 때, 어디에 두는지 알려주세요.

허락 없이 지팡이 등의 위치를 옮기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이 시계방향을 기준으로 위치를 파악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매표소는 당신 왼쪽 9시 방향으로 5걸음 가시면 됩니다." 사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물어보세요.

시각장애인에게서 떠날 때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 공연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할 때 기억해야 할 10가지

1. 편견을 갖지 마세요. 장애인들에게 항상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질문하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세요.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화하고, 말할 내용을 모를 때는 피하지 마세요.
3.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모르겠다면 모른다고 말하되, 알아내려 노력하세요.
4. 같은 장애라도 개인마다 다른 접근성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각장애인은 큰 활자와 안내자가 필요하지만 다른 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5. 장애 증상 자체보다는 환경과 개인의 접근성 요구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계단, 조명, 안내 방송 등이 장애인의 공연 감상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일 수 있습니다.
6. 공연장의 접근성 시설과 장비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보청기 루프, 수화통역, 적외선 헤드셋 등의 목적을 이해하면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의도치 않게 실수했다면 사과하고 이유를 설명한 후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유머 감각을 가지세요.



8. 장애인 관객들이 상이한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최선을 다해 환영하고 서비스해야 합니다.
9. 준비가 부족하다면 훈련을 요청하고, 부족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세요.
10. 장애인을 구별하여 과도하게 돕지 마세요. 적절하고 세심한 도움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세요.

## 법적 기준과 높은 접근성의 확보

공연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관련 법령들은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건축물 피난, 주차장법 등 다양한 법령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공연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관련 법령 내용에서 그 기본적인 원칙과 최소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제시된 법적 기준만 지킨다고 접근성의 모든 걸 갖출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행 법령의 기준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공공의 공연시설을 신축한다면 결과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적절한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BF인증이라고 부르는 이 단계는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법령의 기준을 넘어서는 각 상황에 따라 접근성 높은 공간의 구성을 심사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법령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BF인증을 거쳤더라도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관련한 법령의 기준과 준수는 높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각 공간의 상황, 여건에 맞추어 실제 운영상황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가야 가능한 최상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 공연시설 접근성 관련 법령 |

구분	법령	내용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연시설의 규모에 따른 법령적용 기준 판단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3조)
		공연시설이 갖추어야할 편의시설 정의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4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5조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 구획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인증)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문화체육관광부)
행위 (관람 고용 포함)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5(피난안내)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구분	법령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	<p>제4조(차별행위)</p> <p>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li> <li>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li> <li>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li> <li>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li> </ol>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li> </ol>

구분	법령	내용
		<p>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p> <p>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5조(차별판단)</p> <p>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금지)</p> <p>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p> <p>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구분	법령	내용
		제2장 차별금지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색인

### 접근성 관련

관람석	52, 62, 63, 67, 68, 69, 79, 80, 89, 91	인공와우	37, 108, 119
대기실	34	자막해설	10, 25, 27, 86, 92, 93
릴렉스드 퍼포먼스	54, 72, 91, 99, 100	장애인 콜택시	29, 60, 61, 105
매표소	64, 65, 66, 67, 85, 118, 120	재방문	71
모두예술극장	35, 93	접근성 매니저	10, 15, 21, 29, 30, 33, 39, 40, 41, 97
문자통역	31, 37, 52, 62, 69, 86, 89, 98, 119	접근성 지원	30, 41, 47, 52, 54, 62, 71, 86, 89, 94, 95, 98, 100
배리어프리	25, 30, 94, 95, 97	체크리스트	9, 10, 11, 16, 17, 18, 20, 113
보청기	37, 119, 121	촉각투어	87
수어통역	25, 31, 37, 38, 52, 62, 66, 69, 85, 86, 89, 94, 106, 109, 110	터치투어	27, 87, 88
안전	11, 18, 36, 40, 64, 65, 66, 68, 69, 77, 78, 79, 80, 81, 89, 92, 107, 113, 114, 122	팜플렛	53, 55
열린 객석	91	포스터	32, 45, 46, 53, 99
예매	46, 62, 63, 65, 69, 70, 94	프로덕션	28, 32, 33, 38
온라인	37, 39, 45, 47, 105	피드백	10, 11, 19, 71, 103, 105, 107, 108, 109
우퍼 조끼	95, 96, 110	화장실	18, 34, 38, 52, 69, 70, 71, 72, 93, 100, 115, 117
음성해설	10, 25, 27, 31, 52, 69, 72, 87, 89, 93, 94, 95, 97, 106, 109, 110	휠체어	18, 27, 28, 31, 33, 34, 35, 39, 40, 41, 52, 62, 63, 66, 67, 68, 69, 70, 72, 79, 80, 89, 90, 91, 92, 93, 106, 107, 108, 113, 114, 115, 116, 117, 118
이동지원	27, 29, 52, 60, 62, 89		

### 장애유형 관련

발달장애	37, 48, 54, 67, 69, 72, 91, 119
시각장애	25, 27, 28, 29, 31, 36, 38, 45, 47, 48, 53, 60, 62, 65, 69, 71, 78, 87, 89, 95, 97, 98, 105, 108, 118, 120
중복장애	38, 77, 108
지체장애	34, 35, 38, 48, 105, 108
청각장애	18, 25, 27, 31, 37, 38, 47, 48, 65, 67, 69, 71, 77, 89, 94, 95, 96, 98, 105, 108, 118, 119

## 그림목차

- [그림 1] 공연시설 접근성 체크리스트 세부 분류 20
- [그림 2] 무장애 공연 <틴에이지 락> 포스터 32
- [그림 3] <The Solid Life of Sugar Water> 작품 속 장면 35
- [그림 4] 모두예술극장의 무단차 오퍼레이션 콘솔 35
- [그림 5] 한눈에 알아보고 읽기 어려운 포스터 예시 45
- [그림 6] 비교적 공연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포스터 예시 45
- [그림 7]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포스터 46
- [그림 8]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예매공지 46
- [그림 9] 아르코미술관 공공프로그램 홈페이지 ‘모두를 위한 프리즘’ 발췌 49
- [그림 1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일반 모드 50
- [그림 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텍스트 모드 50
- [그림 1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고대비 모드 50
- [그림 13]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 51
- [그림 14] 2022 PAMS CHOICE<무용수-되기> 53
- [그림 15] 뮤지컬 <마틸다>의 홍보영상 캡처 54
- [그림 16] 공연시설 관람객 여정의 단계예시 59
- [그림 17] 국립극장 하우스매니지먼트팀 입말카드 65
- [그림 18] 국립극장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수어통역 출연자 85
- [그림 19] <댄스네이션> 공연의 자막해설 86
- [그림 20]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무대 모형 터치투어 현장 88
- [그림 2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계단 이송용 보조도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지하 비치) 90
- [그림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계단 이송용 보조도구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3층 비치) 90
- [그림 2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접근성 개선 내용 92
- [그림 24] ‘모두예술극장’ 객석 2층 조정시설 전경 93
- [그림 25] 국립극단 <소극장판-타지>(2022) 공연 장면 95
- [그림 26]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좌석 일부에 비치된 우퍼 조끼 96
- [그림 27]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함께’ 공연 사진 및 포스터 99

## **표목차**

- [표 1] 공연시설과 공연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 18
- [표 2] 각 장애 유형 및 특징에 따른 보완 대책 종합 48
- [표 3] 공연시설을 위한 접근성 체크리스트(Arts for All 자료 재구성) 113
- [표 4] 공연시설 접근성 관련 법령 122





##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행인 김형희

사업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총괄 신상미 예술지원부 부장  
기획편집 정지윤 예술지원부 대리

사업수행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총괄 오성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연구책임 김영익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연구PM 한수지 메타기획컨설팅 팀장  
연구 강재훈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엄태은 메타기획컨설팅 협력 컨설턴트  
정영석 피알원 시니어 컨설턴트

협력기획/공동집필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김원영 공연예술가/작가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장애 관련 감수  
시각장애 부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청각장애 부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 부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청각장애 부문 헬렌켈러센터  
발달장애 부문 함께웃는재단

디자인 그라핀  
편집 김현식, 조성익  
인쇄/제책 에프 스튜디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2  
02-760-9735  
<https://www.kdac.or.kr>

ISBN 979-11-986552-3-3  
ISBN 979-11-986552-2-6 (세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